

렐트리 기출 미니 모의고사

20회분



주요 기출만을 담았습니다

2

"개학 후에는 수학 공부와 각종 학교 행사로 국어 기출 학습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렐트리²가 엄선한 20회분 미니 모의고사를 활용해 자투리 시간마다 기출을 복습해 보세요. 단기간에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합니다. 6모 이후? 9모 이후? 언제든지 상관 없습니다. "아 기출 좀 봐야 되는데." 할 때 부담 없이 꺼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미니 모의고사는 평가원 고난도 및 렐트³ 선정 핵심
평가원 문항만을 담았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으니 당장의 점수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안내된 시간 제한은 1등급
수험생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에
연연하기보다 한 문제씩 확실히 '뚫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세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하세요

이 책은 사실 위에서 설명한 듯 “아 기출 회독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 하실 때 편하게 보시라고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 기출 회독이 필요한 시기, 그때 이 책을 꺼내어 살펴보세요. 아니면 그냥 푸셔도 됩니다. 제가 권장 드리는 건 하루에 한 회분씩 푸는 것이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꼭 오답 문제는 제대로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디엠으로~



**힘들 때 등을 밀어주는 건
도망치지 않았던 나 자신**

시작합니다!!(여백)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를 변화나 득표를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

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첨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복돋운다.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3.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4.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A후보	42%	38%	39%
조사 결과	B후보	32%	37%	38%
	C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수능)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편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 ㉡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 ㉢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 ㉣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6.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징하였다.
-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7.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9.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10.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엔 16강에 그쳤다.
-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5학년도 수능)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
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릴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별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병을 다스림.

* 환후: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
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
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가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뱃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봐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흙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찾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13.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1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③ ㉡은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은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 ⑤ ㉠과 ㉡은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 ⑤ ‘자신의 비루함을 뱉숙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학년도 9모)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견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뜬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폐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뉘세이고
 앞 여울 가리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활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먼 산 두메로 핑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술질 활활 활활 하여 입의 집 송정 뒤 잔디 잔
 디 급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승마 바 고삐 길게 늘
 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
 나 굶으나 굶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버들 가지 와지곤 똑딱 뛰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
 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떼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

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쁜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중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

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려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옹'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③	②	②	④
⑤	③	②	①	②
④	⑤	②	②	①
①	②	④	①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경마식 보도가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② 경마식 보도는 새롭게 재미있는 정보를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경마식 보도는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으로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으므로,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④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므로,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선거일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고 하였으므로,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는 3문단에 제시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로 보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④(다수 의견)는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며, ⑥(소수 의견)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가 있다고 본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 규정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④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수 의견은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④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의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⑥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소수 의견의 지적이 언급되었다.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떨어진다는 것은 소수 의견에서 지적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⑥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함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⑥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㉔(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㉔(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㉔(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 <보기>의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8.8%p)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라고 보도하는 것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㉔와 ㉔에 모두 위배된다. ‘9일 전’이라는 시기는 ㉔, ㉔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의 지지율이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

의 지지율이 C 후보에 대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와 ㉔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㉔에 위배된다. 그리고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A 후보를 1위라고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하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하더라도 ㉔에 위배된다.

④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가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가 C 후보에 대해 지지율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A 후보와 B 후보를 서열화하는 보도는 ㉔에 위배된다.

⑤ 2차 조사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2차 조사 결과를 서열화하지 않고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㉔에 위배된다.

[5~10]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엔푸는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과학 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을사늑약 이후 박은식이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하였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인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장천마이는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회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고 하였다.

6.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에 나타난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통시적 흐름을 보이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고려할 때, 한성순보는 3문단에 제시된 대한매일신보보다 앞선 시기에 발간된 신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성순보는 1883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되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으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3문단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는 개화 실행 주체를 왕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④ (가)의 3문단에서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갑신정변에서 사라졌으며,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다고 하였다.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천두슈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장천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하고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둘 다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천두슈는 신문화를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로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이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하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쑤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옌푸는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옌푸의 입장은 천두슈에게 이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쑤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쑤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과학 및 과학의 방법을 이용한 신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쑤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은 박은식의 견해로, 박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은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은 천두슈의 견해로,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④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로, 이들은 민족 주체성을 간파했다. 박

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과학에서 초래된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 를 발간했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는 A 마을 사람들이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즉 <보기>에서 정부의 홍보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에 공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는 마을의 경제 발전에 있으므로, 이 둘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한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젊은이들은 전통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는데, 박은식은 젊은이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④ (나)에 따르면,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옌푸는 <보기>에서와 같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나)에 따르면, 장쑤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쑤마이는 <보기>의 마을에서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공상에 그칠’과 ‘16강에 그쳤다’의 ‘그치다’는 모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의 ‘그치다’는 모두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16]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배’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그’와 대상인 ‘그녀’ 혹은 ‘편지 속의 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단풍’, ‘은행’ 등은 가을의 조락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의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도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는 ‘바닷물’, ‘허공’, (나)에서는 ‘단풍’, ‘은행’, ‘개망초’, ‘풀’, ‘흙’, ‘달’, ‘별’ 등의 자연물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는 ‘배를 민다’, ‘부드럽게도’, (나)에서는 ‘킁킁거리며’, ‘킁킁 당신’ 등을 반복하거나 변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과 변주가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다)에서는 ‘편지 속의 그’를 ‘또 다른 영혼’으로 표현하는 등의 변주는 있지만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한껏 세계’ 배를 밀어내었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사랑하던 이를 힘겹게 떠나보낸 뒤 이별로 인한 심리적 상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소 잠잠해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내 안으로’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온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환기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다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예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등의 시구는 이별하는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랑’은 ‘뾰지도 않는 길’을 떠난다. 이는 이별에서 오는 막막한 심리적 정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것과 같이 이별로 인한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려 한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생기고,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잠시 잦아든 상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나’는 ‘마음의 무덤’에 ‘병자’처럼 별초하러 간다. 그러므로 ‘병자’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치병’과 ‘환후’에 연결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나’는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의 기억으로 ‘당신’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은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나’의 눈앞에 없지만 ‘이만큼 살아온 상처에 기대’ 부름을 통해 환기되는 존재이다.

④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에서 보듯이 ‘당신’은 ‘나’가 버릴 수도,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적요로움의 울음’, ‘슬픔’, ‘상처’ 등과 함께 ‘사랑’, ‘아름다움’, ‘이쁜’ 등의 시어는 ‘당신’이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서술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의 일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킁킁’은 웃음소리를 본뜬 시어이다. 이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의성어이다.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이 이어져 있는 서술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은 사랑의 기억, 상실의 고통 등의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마음의 무덤’은 사랑의 기억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서술로 볼 수 있다.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에 해당한다. ‘이쁜’, ‘참 좋지요’는 대상에 대해 사랑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5.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④는 ‘병을 다스림’과 ‘병’은 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병’은 사랑과 이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상처, 아픔과 슬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④ 사랑의 편지는 상대를 향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등만이 있다.

⑤ ㉔는 ‘치병’과 ‘환후’가 서로 다르기에 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는 말이고, ㉕는 편지에 적는 사랑 고백 같은 것이 위선 또는 위악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㉔는 아픔을 겪는 이가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가 병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㉖ 또한 고백을 하는 이가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백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선 또는 위악을 행할 뿐일 것이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익명의 욕구’에 의해 처음에 품었던 현실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에서 ‘전언’은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혹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와 연관된다. 따라서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제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③ 사랑의 편지는 상대 즉 ‘그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 ‘2인칭’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로 귀결된다.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여,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④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편지 속의 그’이고, 이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다. 편지 속의 그 영혼은 그녀와 그를 매료시킨다.

⑤ ‘편지 속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로 실제의 자신과는 깊은 간극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기에 ‘그’는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루함을 실감하게 된다.

[17~19]

1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초장에서 ‘활활 활활’은 말을 솔질하는 종의 행위를, ‘팡팡쌩쌩’은 말뚝 박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으며, 중장에서 ‘주섬주섬’, ‘와지끈 푹딱’, ‘주루룩’, ‘너슬너슬’ 등은 물고기를 잡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활사’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정경의 변화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에서는 두 개의 개별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 이동의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생매를 이용하여 꿩 사냥을 한 후 여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활사’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현과 호걸은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의 중장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고기들을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1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심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담담한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덮인 것은 ‘작품’이 불어 공산에 쌓인가를 잎을 쓸고 간 이후이므로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로, 화자는 경요굴 숨은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성산의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산의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만고 인물’을 거슬러 생각하며 시운의 흥망에 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산중에 벗이 없’는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지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생매’는 꿩 사냥에 동원된 새인 ‘매’를 가리키므로 이를 고고한 취향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학’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고기’는 앞내 여울과 뒷내 여울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로 화자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움버들 가지에 꿰어 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가)의 ‘소신’과 ‘적신’은 각각 소동파와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로 청정한 강호의 세계인 성산에서 떠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학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아오거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 말하고 있다. 화자는 뒷내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므로 ‘선관’은 화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자 하는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산옹’은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 김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초장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세상사는 구름처럼 험하다고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동자에게 학을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으면 술을 가져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술병’은 물고기를 잡는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학년도 수능)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A]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대개로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변형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형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변형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3.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4.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5.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냥을 연정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뀌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학년도 6모)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

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7.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A | B |
|---|-----|-----|
| ① | 진양성 | 진음성 |
| ② | 진양성 | 위음성 |
| ③ | 위양성 | 위음성 |
| ④ | 위음성 | 진음성 |
| ⑤ | 위음성 | 위양성 |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①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①을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②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③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④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⑤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5학년도 6모)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々)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벽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짙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건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었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편는

저 급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

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있지 않기를 바라느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있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있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있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 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것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있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있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려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1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뉘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학년도 수능)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웅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열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원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A]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썽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른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
요 틀어 지은 고사매*
라
삼봉 괴석에 달린 술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섰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제1수>

<제6수>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 작자 미상, 『김원전』 -

17.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8.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었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협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아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④	⑤	③	④
③	③	①	④	②
②	①	③	③	②
⑤	②	③	④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는 1778년 함께 여행길에 올라 함께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여행록을 바탕으로 18세기 중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 1문단에서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라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던 박제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면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던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북학과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18세기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 양상을 다루고 있을 뿐,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18세기 후반 중국을 다녀온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을, (나)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중국의 현실이 당시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 문물

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자신이 인식한 청의 현실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도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숨겨진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견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풍토로 인한 청과 조선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평등견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는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청이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징후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서 '위기의 씨앗'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고 말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은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나고,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을 '위기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은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5. 글에 들어간 내용 비판

정답 해설 : (나)에서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명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라는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 변명에 기여한 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은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 박제가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중국

의 경제적 변명에 은이 기여한 요소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이 사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채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상업이 융성하고 관련 활동이 활발했던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이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제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종종 관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채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나)에서 제시된 바 없는 관료, 지배층의 다른 면모이므로 당시 청의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다.

6. 단어의 적절성 파악

정답 해설 : '한정되다'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그치다'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은 '그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보존되다'는 '잘 보호되고 간수되어 남겨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드러난'은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생각하지'는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자극하다'는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따라갔다'는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성행하다'는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일어났다'는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7~10]

7. 세부정보, 핵심정보 파악

정답해설 :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이 발색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의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이며, 2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고,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시료의 목표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어도 키트가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는 위양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직접 방식의 경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하지만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자체이다.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복합체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게 되며,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항체와 결합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결합 패드의 검사선은 표준선보다 시료 패드에 더 가까우므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는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를 이용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표지 물질이 아니라 복합체의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과 관련이 있다.

9. 세부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시료

에 목표 성분이 존재함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위음성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시료에 대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진음성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10.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므로 항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직접 방식의 LFIA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키트의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따라서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에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인지 표지 물질에 항원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므로 ㉠의 개발에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 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LFIA 키트가 개발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LFIA 키트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는 데에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⑤ 〈보기〉에서 ㉠이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낮다고 하였으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가 위양성일 수 있다.

[11~16]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색채어 ‘푸른’이 3연, 4연, 5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1연과 3연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을 것이다’와 2연에서 ‘~이(가) 아니었으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명시적 청자로 설정된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는 ‘단청은 연년이 빗을 잃어’에서 사라져 가는 대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사라져 가는 대상이나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관조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에서는 세태를 관망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 (나)의 경우 대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다)의 경우 글쓴이가 이홍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므로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해들 적마다’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모습이 천년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이를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단청은 연년이 빗을 잃’는 것은 인간 역사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단청의 ‘두리기둥’의 틈에 벌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가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주춧돌’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는 것과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은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닫혀진 문’이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명 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것은 수양의 가지와 뿌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황을, ‘손을 터는’ 것은 꽃과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고집 센’은 ‘비’의 성격을, ‘도리 없는’은 ‘폭설’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지로 하여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비’나 ‘폭설’이 아니라 ‘담’이다. 따라서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은 가지가 다른 채의 도움 없이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담 밖을 가뉘두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무명에 획을 긋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가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담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알았다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대상들, 즉 뿌리, 꽃과 잎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비, 폭설, 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는 수양과 마찬가지로 담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관계를 앞에서 언급한 뿌리, 꽃과 잎의 의미나 비, 폭설, 담의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는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상황이다. 글쓴이는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과 같은 질문을 던져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 글쓴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글쓴이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던진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먼 것’과 ‘가까운 것’, 그리고 ‘새것’과 ‘옛것’은 모두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처럼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는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잊음에 대한 생각, 즉 대조적 관계를 지닌 대상 중에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잊게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잊어야 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질시의 눈길을 받거나, 귀신이 내리는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잊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문’은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여 있는 ‘천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모습을 보인다. (나)에서 ‘가지’는 담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담 밖’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벽이 오

는 순간 닫힌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가지'는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문'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에서 화자는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지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문'이 외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가지' 역시 외면의 변화나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 '문'이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서 '가지'가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1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담'이 가지에게는 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박'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담'이 '가지'에게 양면적 속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화자는 '수양'을 '가지', '뿌리', '꽃과 잎'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혼연일체'라고 말하여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② (다)의 2문단에서는 '잊어도 좋을 것'에 대해, 3문단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3문단에서 글쓴이는 효심, 충성심, 의로움, 예의, 분수, 도리 등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으로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꼽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담쟁이 줄기'가 담을 타고 올라가 담을 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의 4문단에서 글쓴이는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내적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외적인 것'은 잊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17'19]

1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열두 발 쌍뚫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등은 대풍이라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배와 쌍뚫대, 초석 돛

등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중략) 이전은 화자가 일본으로 출항을 한 후 대풍을 겪는 위험한 상황을, (중략) 이후는 화자가 조선으로 돌아와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의 배려에 감격하고, 가족과 친척을 만나며 기뻐하는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가)의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는 사행 과정을 회상하는 비유적 표현인데,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제6수>의 '양류풍(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봄이라는 계절과 연결할 수 있으나, (나)는 향촌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 <제6수>에 '초동(빨나무를 하는 아이)'과 '목수(가축을 치는 늙은이)'라는 두 인물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화자가 여유롭게 소일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화자를 가리키는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서로 대비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와 (나) <제1수>의 '너뿐인가 하노라' 등에서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대상에 대해 경외감(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C]의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는 처자식들이 사행을 다녀온 화자와 재회한 후 너무나 기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그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없이 무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연해 각진포에 /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에서 출항 후 일본으로 이동하는 선상에서 조선 연안의 군영과 포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과 육지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임금(나라)은 무더운 날씨에 땅에 엎드려 결과를 보고하며 땀을 흘리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천은이 망국하다'는 감격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의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 아무것도 아니 뵈고'에서 화자가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B]의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쑥을 여쭙으니 /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 물 흐르듯 하는지라'에서 화자가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대풍이 불어 성난 물결을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을, [C]에서는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를 통해 과거의 위험했던 사행 경험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 가뜩이 심란한데'에서 화자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야인 생애도 자

량할 때 있으리라'는 화자가 벼를 갈고, 싹을 치고, 소를 먹이는 자신의 향촌 생활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며 자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에서 알 수 있다.

② (나) <제1수>의 초장과 중장은 화자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분개로 조성한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중장에서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하며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에서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제1수>의 '꼬아 자란 충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에서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마지막 행인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를 통해 화자는 처자식이 있는 공주의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제6수>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에서 화자는 '양류풍'이 불어오는 자연의 양상에 감응하며 자기 뜻대로 세월을 보내는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학년도 수능 B형)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분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

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 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변명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2.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3.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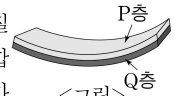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6학년도 수능)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그림>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휨,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띠가 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5.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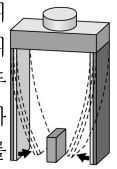
6.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₀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₁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₀에서 T₁보다 높은 온도인 T₂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T₀에서 T₁로 올렸을 때보다 T₀에서 T₂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 ② T₀에서 T₁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 ③ T₀에서 T₁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 ④ T₀에서 T₂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 ⑤ B와 달리, T₂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8.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 ②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 ③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 ④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뭉으로 돌아왔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학년도 6모 b형)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칭찬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폐미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머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횡난을 내쫓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 를 바랐다.

아버지의 복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복을 베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민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억태, 그러면서도 복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머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가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썹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세사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는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혼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쉿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

다.

㉤“도박도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쟁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언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몰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 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복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히 가혹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복을 뺀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 최일남, 「호르는 복」 -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
- ② ㉡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한다.
- ④ ㉣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준다.

10. 앞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사의 의미’는 ‘민 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11. 다음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과제 최일남의 「호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 ①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 노인’과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군.
-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③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④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9모)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 [A]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뉘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내가 알아서 뭇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닫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꼭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취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남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남자는 그 사람이 누구지 아오?”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오.”(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

“남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네가 춘향 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오. 도련님께서 남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나?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남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남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3.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14.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둬진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④	④	③	③	⑤
③	①	①	⑤	④
④	①	③	⑤	⑤

[1~4]

1.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3.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 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항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어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5~8]

5.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반응 완료 시간은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열을 가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은 길이 변화율이다.

③ 1문단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6.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라 더 많이 변화하는 것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이며,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고 길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있다면, 온도가 변화하였을 때 처음 값보다

나중 값이 작을 것이므로 길이가 줄어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인바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으므로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이며,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처음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때가 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며, 최대 이동 거리는 때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때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더 많은 구간이 구부러져 최대 이동 거리가 커진다. 따라서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때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고 추론할 수 있다.

7.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때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고 하였다. A는 T1에서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의 곡률은 T1로 올랐을 때보다 T2로 올랐을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2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b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T1에서 소멸되지 않으며 T2에 이르러서도 소멸되지 않고 더 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0에서 T1로 올랐을 때보다 T2로 올랐을 때 b의 곡률은 더 크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T1에서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집게 B보다 곡률이 작을 것이다.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므로 a의 곡률 반지름은 b보다 클 것이다.

③ 5문단에서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때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T1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같았다는 것이며 반응 완료 시간이 같다는 것이다.

④ 집게 A는 T2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는 T2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게 B는 T1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T2에서 b의 최대 이동 거리는 a의 최대 이동 거리 이상일 것이다.

⑤ 3문단에서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때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1에서 집게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가 되어야 집게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a보다 b의 휨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8. 정답해설 : ‘얻는’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무엇을 할 차례나 순서가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얻었다’는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먼 쪽으로 돌리서 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 되는 것이 다시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몹, 비난, 칭찬 따위를 받다.’의 의미로 쓰였다.

[9~11]

9. 정답해설 : ㉞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편찬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㉞은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며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㉞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른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㉞을 살펴보면,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㉞의 앞 발화는 ‘성규’의 말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 자신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 정답해설 :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구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

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은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 노인’의 소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로 볼 수 있다.

② ‘낯선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연관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③ ‘역사의 의미’란 ‘진 세대끼리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화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11.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12~15]

12. 정답해설 : 춘향은 꽃그늘 속에서 이도린을 바라보며, ‘티없이 맑’은 그의 모습을 보고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을 만큼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춘향이 꽃그늘에 숨어서 한 행위이므로 이도린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춘향은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으므로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고 가정하더라도 춘향은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으므로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도린이 춘향을 불러오라고 김한에게 요청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말은 김한이 한 말로 볼 수 없으며, 이도린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④ 이도린이 김한에게 그네 뛰는 여인이 ‘누구란 말이나?’라고 묻자, 김한은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언급한다. 이에 이도린은 ‘아리따운 여인’을 ‘노파에다 비교’한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자, 김한은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⑤ 옆집 여자 아이는 ‘풍경을 즐기려’고 했을 뿐, 그녀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나왔거나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해설 : 정답해설 :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돌려’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도린의 모습을 보며 찬탄하던 곳이다. 따라서 ‘꽃그늘’을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꽃그늘’은 춘향이 타던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기려고 들어간 곳이다. 따라서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꽃그늘’은 춘향이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돌려 숨’은 곳이며, 그런 그녀를 김한이 이리저리 찾다가 발견한 곳이다. 따라서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꽃그늘’은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도린의 요청을 받은 김한이 숨어 있던 춘향을 찾은 곳이다. 이도린은 광한루 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꽃그늘’을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광한루에 놀러 간 이도린은 그네 뛰는 춘향을 우연히 보았으며, 그 모습에 반하여 김한의 도움을 받아 춘향과 만나려고 한다. 이에 김한이 춘향을 찾아간 곳이 ‘꽃그늘’이므로 이곳을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해설 : 김한은 춘향에게 찾아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언급하고, ‘도련님께서 춘향이 ~ 그렇게 된 것이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김한이 춘향과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준 사실과, 김한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도린이 그네 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라고 한 것은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한 말이며 실제 그것이 금인지 옥인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김한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이도린에게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한은 고사를 인용하여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을 두고 이도린에게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한이 춘향을 기생 월매의 딸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춘향을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김한이 아니라 이도린이다. 또한 이도린이 김한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김한을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도린의 요청에 따라 춘향에게 찾아간 김한은 춘향이 이도린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라고 말하며, 춘향이 이도린과 만나도록 춘향을 설득한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을 돕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춘향이 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해설 : [A]에서는 「광한루기」가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임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에서는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보태어 인물의 말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A]와 ㉠을 통해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가인(佳人)이 그네를 뛰네’라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제목인 ‘봄놀이’와 관련된 서사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힘으로써, 해당 회의 주요 배경인 ‘광한루’를 소개함과 동시에 작품 탄생의 시발점으로서 ‘광한루’라는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는 ‘광한루 하나가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어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해 서술자가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의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어찌 ~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설의적 방식을 통해 서술자가 이도린의 말에 동조하며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

여 보여 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6모)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①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②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③순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④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⑤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⑥인(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버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⑦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⑧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1.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2.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ㄴ, ㄷ

5.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 ㄴ. 고급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채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6.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피했다
- ② ㉡ : 받아들여
- ③ ㉢ : 믿던
- ④ ㉣ : 끼어들었다는
- ⑤ ㉣ : 이어졌지만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수능)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것은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7.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8.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10.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1. 밑줄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6모)

(가)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A]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깼**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B]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도 뒤쫓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낚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계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C]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등치들이 [D]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의 기동들!** [E]

-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고
 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
 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
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
 작나무 허울 벗듯 **홀홀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
 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
 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

야 할 저 **완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1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② [B] :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 ③ [C] :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 ④ [D] :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⑤ [E] :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②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뚝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③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동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별’의 움직임 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 ④ (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뒤 쫓’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완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6학년도 6모)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뿔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움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
 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업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
 (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底)가 곳간 바닥 그대로 듯이 송전은 술밭 그대로다.

[A]

거리도 반은 술밭 속에 묻혀있다. 해풍에 자란 술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술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술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
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
 고 쟁쟁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
 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과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울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
 킨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
 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
 다. 달빛만이 꼭—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
 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
 니라 술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술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
 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러
 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
 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
 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
 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
 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
 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이태준, 『해촌일지』 -

* 모새 : 가늘고 고운 모래.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
다.
- ㉢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
고 있다.
- ㉣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 ㉤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1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전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18.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술'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② (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백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음,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③	④	①	②
③	②	⑤	⑤	④
③	⑤	⑤	④	③
③	④	②	③	

[1~6]

1.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한(漢)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에서는 『신어』가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여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편찬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육가는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찰 사상을 내세웠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세종이 편찬을 명한 『치평요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는 『치평요람』이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세종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치평요람』에 올바른 정치를 강조하고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며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한 입장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한(漢)에서 쓰인 책인 『신어』를,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인 『치평요람』을 다루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가 각각의 책이 쓰이게 된 시대 상황과 책에 반영된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저술된 책이므로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다.

③ (가)는 『순자』와 『신어』라는 두 권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순자』는 전국 시대에, 『신어』는 한나라 때에 저술된 것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다.

④ (가)의 『신어』와 (나)의 『치평요람』은 모두 새 국가의 통치를 위해 역사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 실용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두 책이 다양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육가가 저술한 책이고, (나)의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책이므로, 두 책 모두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은 아니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자치통감강목』의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평요람』이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진(秦)의 권력자였던 이사에 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진(秦)나라 때는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세종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용비어천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3.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육가는 ㉠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무위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이며, 권세란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결국 육가에게 ㉠은 군주의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것이므로, ㉠이 학문 분야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② 육가의 사상은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은 맞지만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③육가는 도가의 무위를 수용하면서,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육가는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을 지식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과 ㉡은 이러한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육가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왕도 정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육가가 제시한 ㉠과 ㉡은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보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및 인의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ㄱ. (가)의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에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고, 이 책에서 진(秦)의 사상 통제가 낡은 폐해를 거론하며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가는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치평요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기존 역사서와 달리 전쟁, 외교 문제 등을 부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가)의 육가는 『신어』에서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말하였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국가의 멸망 원인은 정치 운영, 정치 행위에 있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ㄷ. (가)의 육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사상을 통제한 진(秦)에 대해 거론하며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인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고려 정치와 관련하여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즉 고려의 사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여긴 것이지 고려에 사상적 공백에 있어 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ㄱ은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역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ㄱ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과 다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어』에서 육가는 진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진위 판별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서 진실을 중시하는 ㄱ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ㄴ은 흥망이란 객관적 형세의 흐름인 시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책으로,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ㄴ의 관점에 입각하면 『치평요람』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가의 흥망의 원인은 시세의 흐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ㄷ은 역사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어』에서는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ㄷ에서는 도의 본체는 경서에, 도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

고 하였다.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가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경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역사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큰 쓰임에 해당한다.

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민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어떤 일을 이루도록 피하다.’라는 뜻이다.

② ㉢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④ ㉣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라는 뜻이다. ⑤ ㉤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의 뜻이다.

[7~10]

7.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이 어떤 전망을 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으며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기존의 금 본위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던 금에 달러화가 추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실제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 결과,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는 진술을 통해 ‘평가 절상’이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달러화가 금과 함께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으며, 금 1온스와 35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일정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의 금액이 기존에 비해 더 커지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2문단에서 언급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금 태환 조항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가 단행되었으므로 고평가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달러화의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하에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트리핀 딜레마 상황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2문단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금 1온스당 35달러를 맞교환해 주어야 하는 금 태환 조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금뿐만 아니라 이를 맞교환할 수 있는 달러화가 늘어나 국제 유동성의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일정 정도까지의 금의 생산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9.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교차 환율’이란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세 국가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두 국가 간의 교차 환율이 존재하며 가짓수는 1이다. 한편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

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1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기 때문에 국가 간 통화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 국가를 A, B, C라고 할 때 A-B, A-C, B-C 국가 사이에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금 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화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한다. ㉤의 붕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수에 변함이 없고 기축 통화가 여전히 달러화이므로 교차 환율의 가짓수에도 차이가 없다.

③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금의 가치에 고정되며, 이에 따라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도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제한된 상황에서 ㉠에서 ㉤으로 바뀐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10.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세 국가의 합의에 의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하였다.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이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가 합의 이전보다 낮아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국가 간 환율에 의해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A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A, B, C국의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가치는 평가 절하, 즉 하락되었음을 의미

한다.

③ <보기>에서 세 국가의 합의 결과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하였다. C국 통화의 환율은 B국 통화의 환율에 비해 적게 하락하였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합의 이전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⑤ 3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교역 상대국과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 그 국가는 교역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낮춰 교역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국의 B국에 대한 경상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낮추어, B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야 한다.

[11~14]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중심 소재인 '살구꽃'을 '꽃, 꽃구름' 등으로 나타내며 반복하여 제시하고, (나)는 중심 소재인 '달래꽃'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아 하늘의 기둥들'과 같은 구절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는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에는 '꽃구름'과 '허영계 매달린' '낡은 귀신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대립적인 상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바윗돌처럼 꾹꾹 얼어붙었던 대지'와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등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12.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화자와 '꽃구름'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꽃구름'과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군소리 없이' 생명을 떠받치는 존재로서 '검은 둥치'를 떠올리고는, 이를 '아 하늘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이 집', '저 집', '빈집'을 바라보면서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의 형태와 '분홍빛' 살구꽃의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고,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등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교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화자가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꽃구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검은 둥치들이' '구름'을 '군소리 없이' '잔뜩 인 채 서 있겠지'라며 그 모습을 떠올린다.

1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한히 트인 길'이 있어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밝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너'와 함께하는 데에 삶의 의미를 두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저 하잘것없는'은 '달래꽃'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며, 화자는 그러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이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얼어붙었던 대지'는 '달래꽃'이 피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여 '뚝고 솟아오른' 모습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달래꽃'의 긴긴 역사와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빚어낸 결과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를 '찬양'하는 것은 달래꽃이 가진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달래꽃'이 피어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예쁘디예쁜 손'은 '달래꽃'에 속한 대상이다. 그리고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쥌 수 있'다는 것은 화자가 함께하는 '달래꽃'과의 결속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우리 마음에 걸친 거주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자가 '위대한 역사'를 지닌 '달래꽃'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소망을 성취하는 상황에 대한 역사적 전망이 '환히 트인 길'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에서 화자는 '살구꽃'이 달포 뒤쯤에도 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 경우 '살구꽃'이 보일 '낡은 귀신들처럼' 흉한 모습을 '허영계 매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살구꽃'이 '허영계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살구꽃'을 하늘의 '구름'으로, 땅 위에서 꽃을 받치고 서 있는 '검은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때 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살구나무에 대한 화자의 내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과 ‘때맞춰 켜 벌’은 각각 작은 살구꽃과 작은 곤충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두 대상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어서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화자가 생명의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화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의 영속성에 주목하여 ‘달래꽃’이 지닌 ‘긴긴 역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5~19]

1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의 ‘돌 하나’의 모습에, (나)는 ‘술’, ‘바다’, ‘보름달’ 등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한 관심과 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속성에 달의 덕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술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하다.’는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술밭의 정경에 대한 묘사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에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라는 표현을 통해 비가 오면 경치를 보기 힘들다는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이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자연의 극한적 상황이 제시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했으나 비가 오기 때문에 경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사다리도 미끄러울 것이라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류하는 바람에 방문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④는 화자가 가려던 길로 볼 수 있다. (나)의 ⑥는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이 길이 끝나면 천궁, 해탈, 거기엔 떡 뽕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등을 통해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로 볼 때, ④는 현재 날씨의 영향을 받아 화자가 갈 수 없는 길이다.

②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로 볼 때, ⑥에서 글쓴이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웬다하여 /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로 볼 때, (가)의 화자는 일행들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는 글쓴이가 마음에 들어 낮과 밤에 혼자 계속 걷는 길로,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 아니다.

⑤ ⑥는 글쓴이가 걸으면서 감흥을 느끼는 편한 길로 볼 수 있으나, ③는 비로 인해 걷기를 포기한 길이므로, 편한 길로 볼 수 없다.

1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중’에게 전해 들은 말 중에서 ‘화룡이 옮겨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를 통해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것은 화룡임을 알 수 있고, ‘들으니 그럴듯해 건너산 바라보니’를 통해 화자가 사자봉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를 통해 사자봉상의 발밑에 돌이 끼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돌의 위치는 사자 봉 파인 곳이다.

③ ‘화룡이 옮겨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작중 상황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바다로 나가는 정하고 고운 길을 걸으면서 ‘흔레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 세워진 철봉을 ‘초현실과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 철봉에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뽕—안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울려 쓴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달빛만이 확—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글쓴이가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것은 낮에 걸었던 장소인 ‘바다로 나가는 길’을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것은 주막집 바로 곁의 장소를 구경한 것이지,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점심을 먹은 후’라는 시간의 표지를 제시한 후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이동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것은 글쓴이가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가진 ‘술’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이십일 일’과 (나)의 ‘7월 3일(금)’은 일기 형식의 날짜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과, (나)에서 여관의 ‘주인’이 ‘보름달’이라고 답한 일을 기록한 것은,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①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②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

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③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④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①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⑤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⑥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서술된 내용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4.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5. <보기>는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은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맞바꾸는
- ② ㉡ : 동떨어진
- ③ ㉢ : 바라보는
- ④ ㉣ : 빼앗는다
- ⑤ ㉤ : 찾아내는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①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②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③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④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⑤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⑥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8.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 <u>A</u> | <u>B</u> |
|---|----------|----------|
| ① | 클 | 클 |
| ② | 클 | 작을 |
| ③ | 같을 | 클 |
| ④ | 작을 | 클 |
| ⑤ | 작을 | 작을 |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1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 ② ㉡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뀔 바다로 갔다.
- ③ ㉢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 ④ ㉣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⑤ ㉤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5학년도 6모)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게 애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걱 쪼아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젖빛의 풍경이었다. 피임,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적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암마, 이런 나트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길길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쭈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② ㉡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③ ㉢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④ ㉣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⑤ ㉤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12. 밑글에서 ㉠과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② ㉠이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③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④ ㉠이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⑤ ㉠이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13.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② ㉢는 ㉣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 ③ ㉣는 ㉢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 ⑤ ㉢와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

[A] 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너덕하오니 불려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반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 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았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웁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실사오니 ㉞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체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15.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16.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도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잡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③	①	⑤	⑤	③
①	①	⑤	④	②
②	③	④	③	②
①	③	⑤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2문단에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나)는 2문단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환원되는 동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아니라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글의 화제로 삼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3문단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를 들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4문단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성,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 1문단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과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 의의로 제시하면서, 2~4문단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점,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 그의 미학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이다. 즉 양자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대립적 관계

를 형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며, 대중 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3.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때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데, 그 이유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즉 예술가의 주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에 비정형적인 형태만을 통해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에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정형적 형태는 도외시되며, 예술가의 주관도 재

현되지 않는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에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즉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에 재현되지 않으며,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는 ㉠의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에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예술가의 주관은 작품에 재현되지 않으며,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나)의 비판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대중 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즉 동일화된 상품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진정한 예술은 이러한 동일화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화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상품의 교환 가치라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므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전위 예술의 속성에 의해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따라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어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느꼈다. 따라서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으로, 작품에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볼 때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학생이 느끼는 익숙함은 A에 따르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 흠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의 '전락하다'의 사동사이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라는 뜻의 '맞바꾸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⑥는 '따로 떨어져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동떨어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⑦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라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⑧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빼앗는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⑨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찾아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7~10]

7.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⑤

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행집단의 다른 시기의 변화로 파악하여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행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20.9-19.6=1.3명이다. ② 5문단에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비교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할 때, 시행집단인 P주의 저임금 식당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1.3-(-2.1)=3.4명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Q주 식당이나 P주 고임금 식당은 모두 -2.1의 변화를 보여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10.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수원을 바꿨는데'와 '생각을 바꿔'에서 '바꾸다'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에서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오늘 신문에 났다'에서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결론을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건조주의보를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에서 '높이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목소리를 높였다'에서 '높이다'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에서 '줄이다'는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이만 줄입니다'에서 '줄이다'는 '말이나 글의 끝에서, 할 말은 많으나 그만하고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쓰였다.

[11~14]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라는 표지를 통해 서술의 주체가 ‘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과 ‘온통 잿빛의 풍경’인 사위를 지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점에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의 주체인 ‘나’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건(그것은)’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나’가 본 ‘사내의 환영’과 ‘나’가 언젠가 액자 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로,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말이 전달되고 있다.

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의 주체는 서술자인 ‘나’일 수도, 총에 맞아 의식을 잃어 가는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사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각의 주체가 모호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1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어머니가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내용의 말인 ③을 들은 ‘나’는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③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호를 파던 과정에서 발견한 유골을 수습한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부대원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길길대면서 주고받는 말이 ⑥이므로, 이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쟁 중 이태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하게 된 ‘나’가 이해와 연민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기되면서 주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어머니의 말인 ③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 한편 ⑥는 유골 수습 후 ‘음복인 샘’인 술잔을 기울이는 군인들이 ‘길길대며’ 보태는 말이므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주제 기능의 단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② ③은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일 뿐,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유골 수습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인 ⑥로 인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⑥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③으로 인해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③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⑥는 유골 수습이 끝났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③ 때문에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③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⑥로 인해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나’가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③은 한국전쟁 중 이태올로기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맡에 무성한 쪽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덩이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④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⑤에 투영된 어머니의 염원, 즉 아버지의 귀환이라는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③은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동물이고, ④는 땅에 묻힌 아버지가 ‘피워 내’는 식물이므로, ③과 ④에 비해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③은 어머니의 말에 등장하는 대상이고, ④는 ‘나’가 상상한 아버지의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둘 다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④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과는 관련이 없고,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③과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③은 한국 전쟁 중 이태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선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과 ④는 이태올로기 문제로 빚어진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③과 ④ 모두 이태올로기와 연관이 있기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③과 ④로 인해 아버지가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나’는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는 죽어서도 유골을 얹매고 있는 철삿줄을 풀어

주조자 하는 노인의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구성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어머니가 '물 사발'을 올리는 것은 아버지의 무사함과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구성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후부터 '아버지의 죄'를 자신도 나누어 지니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나'의 심리적 불안정은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래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장면은 현기증을 느낀 '나'가 본 환영으로,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간직한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나'의 어머니와 학생복 차림의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후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을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점차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의 변화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구성됨으로써 '나'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18]

15.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황상과 여러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상하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귀를 향해 달려드는 한세충과 아귀의 대화를 통해 그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④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인물의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과 세 공주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황상의 충격이 나타나 있으며, 그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

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복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황상은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자 크게 놀라며 본인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지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신하들 중에서 누가 아귀를 잡아 한을 씻을 수 있을지 묻고 있다. 따라서 황상이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 중 이우영은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모가 넉넉한, 전 좌승상 김규를 불러 문의해야 한다고 황상에게 아뢰고 있다. 따라서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 김규를 부를 때 승상은 원을 데리고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황상을 찾은 승상은, 세 공주를 일시에 잃은 황상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철마산'에서 무예를 익히던 자기 자식이 아귀를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간 일을 보았음을 아뢰면서 자기 자식을 황상에게 천거하고 있다. 따라서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좋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이를 공주와 공유하고, 공주는 '협실'에서 아귀가 잠들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원(원수)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황상은 조서를 승상 김규에게 보내면서 ㉠을 통해 공주를 잃은 통탄을 승상에게 드러내고 있고,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과 같이 말하여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는 아귀에게 공주를 잃은 황상의 통탄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과 ㉠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남두성(김원)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아귀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

내어 시녀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⑥는 승상이 황상에게 올리는 충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다. ④ 승상은 자기 자식인 원이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거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⑤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기 자식을 불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청하고 있으므로 ⑥가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④를 통해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술에 취하게 하려 하고 있으므로 ④가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한 말로 볼 수 없다.

⑤ ㉠에는 남두성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따라서 ㉡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④와 같이 말하며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④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볼 수 없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원수는 원수 자신의 칼로 기둥을 쳐 보라고 하는 막내 공주의 말에 기둥을 쳤으나 반쯤 부러지는 데 그쳤다. 이에 공주가 크게 놀라 아귀에게 그 칼을 썼더라면 큰 화가 미칠 뻔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수가 아귀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칼이 아니라 아귀가 쓰던 비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좌장군 서경태는 급히 임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아귀를 꾸짖으며 칼을 들어 치다가 아귀 입으로 들어갔으나, 황상을 뵈고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서경태와 원수는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인 아귀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②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에게 당하자 황상은 크게 놀라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라고 한다. 이에 정서장군 한세충은 아귀를 베어 황상께 바치겠다고 아귀에 대적하러 나간다. 아울러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이었던 김규를 부르자 승상은 나라에 발생한 변란에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황상을 뵈고 자신의 자식을 불러 아귀에게 대적하도록 충언을 올린다. 따라서 한세충과 승상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귀는 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 거의 닳자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한다. 따라서 주인공인 원과 적대자인 아귀는 피할 수 없는 대결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서장군 한세충이 아귀를 치러 나가자 아귀는 입을 벌려 숨을 내 불어 황상과 만조백관을 오 리나 밀어낸다. 그런 후에 궁중이 텅 빈 것을 본 아귀는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가는데, 이에

황상은 공주를 잃은 일에 대한 통탄을 느낀다. 한편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공주에게 계교를 일러주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는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고 하였는데, 공주는 이 계교에 따라 아귀를 잠들게 하고 아귀의 비수를 원수에게 가져다 준다. 따라서 공주는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사건 해결을 돕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9모)

(가)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뎀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뎀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

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뎀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 ② (가) :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 :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 ④ (나) : 수빈은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 ⑤ (나) :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2.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 ②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③ SF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 ④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 ⑤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면모에 주목하게 한다.

3.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빈은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 ②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 ③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 ④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 ⑤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4. **노붐**, **인지적 낮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이다.
- ② 노붐은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이다.
- ③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④ 인지적 낮춤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 낮춤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다.
- ⑤ 인지적 낮춤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5.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 (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①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 ②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라는 점과 관련 있겠군.
- ④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6.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실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 곁에 있어도 그와 두었던 거리는 멀어지기만 했다.
- ② ㉠ :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큰 미련을 두지 마라.
㉡ : 그는 할 수 없이 산 아래 두었던 본진을 포기했다.
- ③ ㉠ :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길이 펼쳐진다.
㉡ : 우리는 올해부터 체력 증진을 목표로 두려고 한다.
- ④ ㉠ : 사랑하는 누이를 뒤에 두고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 나는 이사를 하면서 큰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 ⑤ ㉠ : 우리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 : 그는 결승선을 겨우 6미터 앞에 두고 힘이 빠졌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①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②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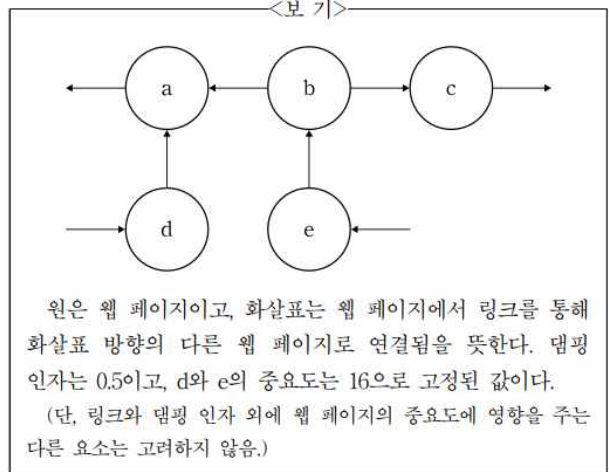
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가 커진다.
-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8.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을 높인다.
-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9.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1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9모)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박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러운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아련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뭘때 언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열핏 [A]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났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까지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

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에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를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도룩하단 말야!”

㉣**거들되는 제복**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짐을 나르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몸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들**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쫓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11.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2.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르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꿈무늬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불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학년도 9모)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착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착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착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 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 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

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맥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지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급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녀석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앙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도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착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 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도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착질하는 서대주 집이나?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꼴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도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앙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16.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중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 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꼴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보이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②	②	⑤	⑤	①
①	②	⑤	⑤	①
④	③	⑤	②	①
⑤	④			

[1~6]

1.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크라카우어는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당시에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영화에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 SF의 허구적 설정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며, 이러한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섬을 촉발한다고 보았다.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대에서 체험할 수 없는 소재를 부적절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우리가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 보았다.

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오늘날의 사회가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되는 것이지만, 영화의 서사가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즉, '역사화'란 영화의 서사가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여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은 SF의 서사가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함으로써, 그 미래 세계가 기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A]에서 수빈은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된 입장에서는 SF 속 유토피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붕괴되며, 이러한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수빈의 생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빈은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은 [A]가 아니라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으므로, 수빈이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를 때,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SF 속 유토피아는 궁극적으로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고 하였으므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인지적 낯섬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하였다.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 아닌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노봄은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②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봄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였다.

③ 노봄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하였다.

④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섬을 촉발하며,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5.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모티브나 이미지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2문단에서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며,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나)의 1문단에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에서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므로, 그 총체적인 양상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를 통해 조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 '둔다'와 ①의 '두고'는 모두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⑥ '두고'와 ①의 '두었던'은 모두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지'는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었던'은 '진영 따위를 설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두느냐'와 '두려고'는 모두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두고도'는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게'는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두었다'는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고'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의 의미로 쓰였다.

[7~10]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다.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인자가 0.8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는 커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러므로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2, 3문단에 따르면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특정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해당 웹 페이지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여기에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 목록이다.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는 중요도와 적합도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인덱스에 정렬된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해당 주제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음)를 간략하게 설명(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음)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옴)하면 ㉠이 높아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을 높이려면 다른 많은 웹 페이지가 ㉠을 높이려고 하는 웹 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나열하거나 유명 검색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것은 ㉠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웹 페이지에 포함된 단어가 알파벳 앞 순서에 있는 것과 ㉠은 관련이 없다.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하는 것은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체 글자 수를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많게 하면 ㉠은 오히려 낮아진다

9.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b와 e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된다. e의 중요도는 16이고, 이를 b와 c에 8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에 댄핑 인자 0.5를 곱하면 b와 c가 e로부터 받은 값은 각각 4이다. 한편 b는 이렇게 받은 값을 a와 c에 2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데, 댄핑 인자 0.5를 곱하면 b로

부터 c가 받는 값은 1이 된다. c가 b와 e로부터 받은 값은 각각 1과 4이므로 이를 합한 중요도는 5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중요도는 d와 b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d로부터는 16에 댄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는다. b는 e로부터 16에 댄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아 이것을 a와 c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므로, b에서 a로 가는 값은 4에 0.5를 곱한 2가 된다. 따라서 a의 중요도는 8과 2의 합인 10이 된다.

② a가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고, b로부터 받는 값은 2이다. 따라서 두 값은 다르다.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c는 b로부터 8×0.5 의 값을 받게 된다. b의 중요도는 e로부터 받은 16×0.5 이기 때문에 두 값은 다르다.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e의 중요도 16은 a와 b에 균등하게 나뉜다. 8에 댄핑 인자를 곱하면 b의 중요도는 4가 된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정이 넘었다.'에서 '넘다'는 문맥상 자정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④와 가장 가깝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③ '경계를 건너 지나다.'의 의미이다.

④ '어려움이나 고비 따위를 겪어 지나다.'의 의미이다.

⑤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온다.'의 의미이다.

[11~14]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도식이 보기엔'에서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한 웃는 표정,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 '작은 체구',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 등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는 권 씨의 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권 씨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A]에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교차와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③ [A]에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을 뿐,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권 씨는 ㉠을 마저 입술지에 대한 남자 직원들의 대

화에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을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이라고 깎아내린다. 이를 고려하면, 권 씨가 남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술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가리켜 '이미 끝난 일이야'라고 한 민도식의 말은,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 마저 입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협약해진 분위기'는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남자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내는 '제복'으로 인해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며, 이때 '제복'은 ㉠을 마저 입는 것을 뜻한다.

⑤ '검정 곤색 일색'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의 모습을 가리키며, 사원 모두가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13.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홀로 '사복 차림으로' '제1 공장 앞에 당도'한 민도식이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제복을 입고 도열하여 사가를 제창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기분을 나타낸 것으로, 직원들이 민도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권 씨는 그들을 돌아다보며 ㉡와 같이 반응하고, 사무직 직원 중 하나인 장상태에게 그들의 대화에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에게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라고 명령하자, 미스 윤은 ㉡와 같이 반응한다.

③ 아내는 남편의 회사 사원이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하는 체육대회 날 '망기적 거리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와 같이 반응한다.

④ 민도식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군대 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모습을 보고서 ㉡와 같이 반응한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권 씨를 '노리개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은 권 씨를 만만하게 보고 함께 그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나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민도식은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여 그것을 입술지 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민도식은 비판적인 태도로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준비 위원회'의 '회의'가 대내외에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 행해진 요식행위라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고 하는 말에서 민도식이 사원들에게 제복을 강요하는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 출근하는 민도식의 모습은, 그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민도식이 준비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간 것은 그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어 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민도식이 그런 자신을 제복을 차려입은 사원들의 '공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그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민도식은 '동립 산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복 차림을 한 채 체육 대회에 참여한 사원들의 '공무니에 따라붙을지' 행사에 '불참'하고 뒤돌아서서 나올지 결정하지 못한 채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불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민도식이 '동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15~17]

15.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딱부리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서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와 같이 뱃 주둥이 끝동 부분에 이르기까지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위풍이 현양한 인물 딱부리의 속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술자가 서대주 맹랑하다 와 같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③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갑분식이라'이나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와 같이 속담이나 옛글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일부 인물의 외적 갈등을 조성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거나 인물의 초월적 능력이 부각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서대주의 집과 장끼가 사는 곳인 양지촌이다 이 두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1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장끼가 서대주에게 간 이유는 양식으로 쓸 쌀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방문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딱부리가 장끼가 쌀아 놓은 곡식의 연유를 듣고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딱부리 역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딱부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가 도적질한 것을 들어 협박함으로써 쌀을 받아내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 애초에 서대주의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끼와 딱부리 모두 서대주를 도적질하는 놈 미친한 도적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서대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서동지 로 존칭하며 대접하는 방식을 계획했고 딱부리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하대하고 겁박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주를 존대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딱부리는 처음에는 서대주를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다가 서대주에 의해 결박되어 해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비는 굴욕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된다

④ 서대주의 거처에 당도하여 장끼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닥 이냐고 서대주의 환심을 살 수 있게 예의를 갖추어 서대주의 집임을 확인했다 이에 반해 딱부리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 이냐고 물으며 서대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시비 쥐 는 서대주를 섬기는 종이므로 신흥 부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시비 쥐 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딱부리가 도적질하는 서대주 라고 함부로 말하며 무례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지 딱부리로 대변되는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식이 떨어지자 굶주리는 처지식을 위해 쌀을 빌리러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는 장끼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서대주가 시비 쥐 를 부리면서 화려한 복색을 갖추고 손님을 외현 에서 맞이하는 장면은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몰락 양반을 대변하는 장끼는 신흥 부호를 대변하는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리게 된다 이렇게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장끼에게 또 다른 몰락 양반으로서 딱부리는 간사하도다 라고 말하며 비판하데 이는 여전히 실리보다 양반으로서 위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모습으로부터 신흥 부

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 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행위는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만큼 향촌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위세를 떨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8 수능 예시문항)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 ㉠지가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작업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의 실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② 디지털 영화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초래했다.
- ③ '트루 라이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관객이 사실적인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영화가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며 관객은 이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받아들인다.

2. ㉠~㉢의 관점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회화에 대한 영화의 우위를, ㉡은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군.
- ② ㉠은 영화의 현실 재현 능력을, ㉢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③ ㉡은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는 역량을, ㉢은 영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④ ㉠과 ㉢은 모두 영화에서 '지각적 리얼리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의 리얼리즘 개념이 디지털 영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겠군.

3.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이다.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년 ○월 ○○일 □□일보

기자: 감독님께서는 ㉮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을 고집하다가 ㉯ 이번 작품에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A: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세계를 표현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 시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했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제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기쁩습니다.

- ① A가 필름 작업을 고집했던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에서 현실의 역동적 양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② A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자신의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현실의 총체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③ A가 자신의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벗'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④ A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최소화하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눈'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⑤ A가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지각적 리얼리즘'을 의도하고 연출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8 수능 예시문항)

(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이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전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범위'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피해 사실을 ㉔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㉕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㉖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보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㉗인용될 수 있다. ㉘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㉙부인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를, (나)는 인격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 배경을, (나)는 인격권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을, (나)는 인격권에 관한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5.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업적 광고에 대한 심의는 사후에만 허용된다.
- ②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 ③ 공적 인물에 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
- ④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가 채택되었다.
- ⑤ 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검열이라고 판단된 것은 심의 시기와 관련 없이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언론의 보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법률에 규정된 기사삭제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①
-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닌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질문 2 인터넷 댓글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댓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문 3 보도 기사의 허위성이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기사의 허위성 여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7. ㉗과 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방송으로 인해 훼손된 인격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③ 인격권을 손상할 것이 명백한 방송이라면, 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④ 현저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⑤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9. ㉔~㉙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근거를 갖추어 피해 사실을 ‘밝혀 설명하고’라는 의미이다.
- ② ㉕ :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㉖ :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 ④ ㉗ : 신청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이라는 의미이다.
- ⑤ ㉙ : 검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6학년도 6모)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날날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 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까?”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케든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량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위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대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국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대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대회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국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온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지라.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머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괴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임을 듣고 대회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버 시광도 오랑캐와 내용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버와 동심합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국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국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대로하여비 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 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회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서 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② ㉡ :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③ ㉢ :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④ ㉣ :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⑤ ㉤ :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③ ㉢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 ⑤ ㉤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12. 다음은 학생이 읽글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문>—

김진옥전 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럴듯하다고 이해했지만,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그 후 ㉤진옥을 포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를 참고하여 읽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 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애척에 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하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순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 가아. 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박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

하고, 뽕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오히려 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쯧, 쯧, 쯧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쥬,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느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할…….’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

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A]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썸 가둬야만 현단 말예요? 그래

└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 “그진,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처

[B] 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

└ 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것이지. 그래 자물쇠

[C] 썰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던 말예요? 듣구두

└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열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 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뭇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었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겉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15.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16.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탄한 이유는 아내가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쉽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 말줄임표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 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쉽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 감탄사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②	③	②	④
①	⑤	②	①	①
①	③	②	①	④
①	②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디지털 영화의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는 것을 관객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4문단에 따르면, 디지털 이미지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이미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는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문단에서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스티븐 프린스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인 디지털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 영화의 대상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므로, 필름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2.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은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하고,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은 ‘사진적 리얼리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영화가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은 영화가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시대로 진입하여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했을 뿐이지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③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는 역량을 중시했던 사람은 ‘영화-눈’을 언급했던 ㉠이고, 영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역량

을 중시했던 사람은 ‘영화-붓’을 언급했던 ㉡이다.

④ ㉡은 영화에서 ‘지각적 리얼리즘’을 중시했으나 ㉠은 그렇지 않다. ㉠은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 이러한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붓’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고, ㉡은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과 ㉡은 모두 ㉠의 리얼리즘 개념이 디지털 영화의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3.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자기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영화-눈과 사진적 리얼리즘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③

[4~9]

4.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정답해설 : (가)는 사전심의제도, 본인확인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일반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댓글, 언론의 보도 기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 방송 등을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②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서 대법원이 도입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는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것이다.

정답 ④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정답 ①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며, ㉠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유사한 입장이다. 정답 ⑤

8.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는 문맥상의 의미를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도 A는 잡의 신문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10~13]

1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부친임을 알게 된 진옥이 헤아렸던 부친과 기적처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으로 볼 수 없으며, 이어서 '진옥'이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고 난 뒤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알이 설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므로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대면한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인 진옥이라는 의외의 사실을 확인하고 보인 반응이며, 이는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겨 '기절하고 없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 ㉣의 '대회'는 동국 용왕이 침노했으니 적병을소멸해 달라는 용왕의 요청에 대해 진옥이 '힘을 다하여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자 그 태도에 만족한 용왕이 보인 반응이다. 이는 또한 용왕이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 ㉤의 '대경실색'은 원수인 진옥이 실종되어 표품한다는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이는 유 승상이 가족인 '부인'과 '소저'와 함께 진옥이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생활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 ㉥의 '대로'는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결며 '풍운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이는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기 위해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드는 행위로 이어진다.

1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옥피리 소리'는 진옥이 탄 배가 '만경창파에' 뜬 가운데 들려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인 '동자'에 대한 진옥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의 '일엽편주'는 인물들이 계획하여 당초 목적한 곳인 고국으로 가는 항해가 지속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 용왕의 청에 따라 '수부'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자가 타고 나타난 것이다.

㉢ ㉣의 '백옥상'은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외가 거룩한' 용궁의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어울려 용왕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주변 풍광과 대

비되거나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의 '청전검'은 '동국 용왕'이 들고 진옥에게 달려든 무기이다. 진옥은 싸움에서 이겨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게 되었으므로, 청전검은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한 소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국 용왕의 상대인 진옥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준 소재로도 볼 수도 없다.

㉤ ㉥의 '항서'는 '적진 군중에서' 쓴 것으로 적이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진옥이 '동국 용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을 감추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건네받는 인물인 진옥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로도 볼 수 없다.

12.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에서처럼 황제가 '그러할 듯 하다고 이해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노인이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기 난중에 잃었'다거나 '화초함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 진옥이 부친에게 '전후사를 낱알이 설화'한 뒤,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 우양 공주가 진옥을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다가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어 모함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에서처럼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가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 죽이려' 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은 동국 용왕의 지경 침노에 의한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진옥에게 대신 해결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것으로 보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인 동국 용왕과 그의 병사들과 '대진'하는 장면은 '남해 용궁'과 같은 초월적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인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를 두고 <보기>의 내용에 따라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진옥이 ‘장사진’을 펼치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 용궁의 ‘제장’이 ‘과연 명장’이라고 ‘칭찬’한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인 수부의 존재인 장군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용왕은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해 주기를 부탁하며 ‘공을 표창’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진옥이 적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자 용왕은 진옥의 공덕을 ‘치사’하며 ‘동해군’으로 ‘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14~17]

1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자기 딸(‘정이’)을 꾸짖었으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 배지 못한 행랑것’과 무슨 싸움이나, 똥은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다’와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갑순이 할머니’가 저녀때 돌아온 남편 ‘집주름 영감’과 ‘그런 상것하고 욕지거리를 하지 마라,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 ‘그 배지 못한 행랑것’, ‘그런 상것’은 ‘갑득이 어미’를 가리킨다. 이처럼 ‘갑순이 할머니’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갑득이 어미’에 대한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갑순이 할머니’의 딸 ‘정이’와 ‘갑득이 어미’ 사이에 ‘별의별 말’이 오가는 말싸움이 벌어졌으나, ‘갑순이 할머니’는 딸을 나무라면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또 이후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의 다툼이 일어나지만, ‘양 서방’이 뒷간에 간힘 일로 인한 것으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양 서방’이 뒷간에 간힘 일로 인해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가 다투자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순이 할머니’와 ‘집주름 영감’ 내외는 ‘갑득이 어미’를 두고 ‘그 배지 못한 행랑것’, ‘그런 상것’ 등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차별적 언행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양 서방’이 뒷간에 간힘은 곤경에 처한 상황이 나타난다.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된다. 이 일로 ‘갑득이 어미’는 흥분하여 ‘갑순이 할머니’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고 ‘양 서방’도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자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된 것은 아

니다.

1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양 서방’이 뒷간에 간힘 일을 두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애아범(양 서방)’이 미워서(동기) 뒷간 속에다 가두는(행위) 심사를 부렸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갑순이 할머니’는 [B]에서 그런 말은 괜한 소리라고 자신은 모르고 자물쇠를 채웠다고 발명한다. 그러므로 ‘갑순이 할머니’가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애 아범’이 미워서 뒷간 속에 가뒀냐,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으냐면서 ‘갑순이 할머니’를 반복적으로 추궁한다.

②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의 비난에 대해 그러한 말은 괜한 소리라고 하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다.

③ [C]에서 ‘갑득이 어미’는 모르고 그랬다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대해, 알고 한 것이며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하며 잠가 버린 거라고 추측하며, 억울해하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반박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⑤ ‘갑득이 어미’는 [A]와 같이 ‘갑순이 할머니’에게 화를 낸다. ‘갑순이 할머니’는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었기에 [B]에서와 같이 당황하며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을 방어한다. 그렇지만 ‘갑득이 어미’는 [C]에서 보는 것처럼 ‘갑순이 할머니’를 불신하면서 몰아붙임으로써 둘의 갈등은 지속된다.

16. 인물의 태도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집주름 영감’은, ‘분별은 있을 아이(정이)’가 ‘그런 상것(갑득이 어미)’하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다. 이에 호응하여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들하고 하는 건 하늘 보고 침 뱉기라고 대꾸한다. 그러므로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그의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가 밝힌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 부부는 ‘갑득이 어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집주름 영감’의 딸이 을득이에게 들려 결과적으로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 서방’이 뒷간에 간힘 일로 인해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만, ‘양 서방’은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여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한다.

③ ‘양 서방’은 뒷간에 간힘 여러 궁리를 하였지만 수상한 인물처럼 느껴질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아내에게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해 뒷간에 갇히게 되었다고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비난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갑순이 할머니’가 자물쇠를 채울 때 얼른 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식으로 ‘매우 겸연쩍게’ 말했기에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제집 뒷간두 아니구 ~ 늙은이두 제엔장할…….’로 보아 ‘양 서방’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 알고 있었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의 반응 이후이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인 동시에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바에 대한 진술이기에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갑득이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에서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순이 할머니’가 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기 위한 시간의 지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네 잘못이야’라며 딸을 나무라지만, 그 ‘잘못’의 진짜 의미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했던 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에서 ‘~라 한다’의 주체는 인물 ‘을득이’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에서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양 서방’이 소리를 질러 볼까 하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에서 감탄사(‘오오’)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득이 어미’가 얼른 소리를 내지 못해 간히게 되었다는 ‘양 서방’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4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수능)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3.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 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4.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5.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학년도 수능)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④일으킨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⑥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③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A]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①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①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②갓 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 * 질점 :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 구 대칭 :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7. 다음은 위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위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8.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9. 밑줄에 나타난 지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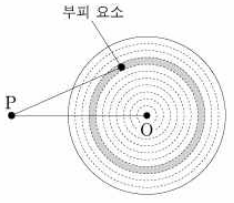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점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 하며 양과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1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진작(振作)할
- ② ㉡ : 고안(考案)했다
- ③ ㉢ : 소지(所持)한
- ④ ㉣ : 설정(設定)했다
- ⑤ ㉤ : 시사(示唆)되어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학년도 9모)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잦아 이속도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듭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 기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 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감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랑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던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다)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넙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 대는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랴.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친 리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척척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발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녀’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② ㉡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② ㉡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가 ‘물을 보는 법’을 ‘썬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鬚)*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회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느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두면 내 분에 두랴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닳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煙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 회황천지 :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20.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복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늑류에 고기 꺾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③	④	③	②
③	②	⑤	④	⑤
②	②	②	④	④
③	②	④	④	③
②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철학보다 인식 수준이 낮은 절대정신으로 보고, (나)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가 변증법 자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를 살펴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가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을 제시하고, 각각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라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 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의 인식 대상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

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은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3.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림을 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있을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나)의 글쓴이는 ㉠의 논리적 구조에서와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종합의 범주가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가 서로 대립한다고 본 것이다.

②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④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의 변증법적 종합은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⑤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두 대립적 범주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황성이 드러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5.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고 말하면서 헤겔의 미학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헤겔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헤겔은 인생의 완숙기에 쓰여진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에 대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예술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을 잘 드러냈음을 헤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보기>의 헤겔의 말에 대해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에 대해 예술이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 충실하

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보기>에 언급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처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킨 작품은 재객관화된 단계로 볼 것이므로 <보기>의 헤겔의 말을 듣고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닐 것이라고 이해하여 반응한다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⑤ 헤겔은 예술을 절대정신의 한 형태로 보았고,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한 헤겔의 말을 듣고 (나)의 글쓴이가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귀결되다'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의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펴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7~12]

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고,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는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으며,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본문의 내용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양 우주론의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개념이 2~4문단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임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답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으로 17세기의 옹명우와 방이지, 17세기 후반의 왕석천과 매문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케플러가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동 법칙들을 수립하였으므로 서양에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왕석천과 매문정이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양에서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왕석천과 매문정은 옹명우 등이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하여 잘못된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양 천문학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하였으므로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중국에서는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9.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우주론을 주장한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충족시킨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본

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케플러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옹명우와 방이지는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옹명우와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왕석천과 매문정 역시 중국 고전의 우주론을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이 『사고전서』에 반영되었으므로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광학 이론을 창안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이지가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매문정은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으므로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고대 문헌에 언급된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였으므로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강한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지구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강한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들의 합계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태양 중심의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지구 껍질들의 질량 합계는 태양 껍질들의 질량 합계보다 작고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질점이 m으로 같다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다르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라면 반지름이 큰 구 껍질일수록 부피가 크

기 때문에 질량도 크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진다.

③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지구의 각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한 부피 요소와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달의 중심과 동일)에서 지구의 한 부피 요소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나아가 이러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의 중심과 질량이 M 인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은, 마찬가지로 '지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이 그 중심에서 '달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 m 을 갖는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 사이의 만유인력은, 그 거리가 동일할 때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작용한다.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지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 있다.

⑤ ③과 같이,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지구의 중심과 구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R+h$ 로 계산된다. 따라서 '지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과 '구슬의 질량(m)과 동일한 질점' 사이의 거리가 $R+h$ 라면,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와 구슬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다.

1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고안(考案)하다'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므로 '고안했다'는 '~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의 '만들었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작(振作)하다'는 '떨쳐 일어나다. 또는 떨쳐 일으키다'라는 뜻이다. ③의 '일으킬'과 바뀌어 쓰기에는 '발생시킬' 또는 '야기할' 등의 말이 적절하다.

③ '소지(所持)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다. ⑤의 '지닌'은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함'의 의미로 쓰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설정(設定)하다'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두다'라는 뜻이다. ④의 '여겼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했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간주했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시사(示唆)되다'는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라는 뜻을 지닌 '시사하다'의 피동 표현이다. '갖추어지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는 뜻을 지닌 '갖추다'의 피동 표현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3~18]

1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갯 속 같은 마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등은 노인이 사는 곳을 묘사한 것으로,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2연은 하늘을 날고 있는 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으로, 연이 위태롭게 떠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넘실거리는 큰 바다 ~ 뚝뚝합니다.'는 '천하의 지도'를 묘사한 것으로, 천하만국이 물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이와 같은 이치를 ~ 의심을 품겠소?'는 설의적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위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에서는 신위와 '나'가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나)에는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에는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회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가), (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⑤ (가)에는 겨울 귀뚜라미가 떼를 지어 우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았다. (나)에는 가상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다)에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을 통해 가상의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것은 노인이 사는 마을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은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뽕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는 모두 시골의 정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⑤ '발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은 <보기>의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눈발이 치는 듯한 '뽕'의 달무리 이미지는 <보기>의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15.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4연에서 ‘하얀 뉘’는 ‘외로이 자랐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의 화자가 느낀 외로움과 연관된다. ‘붉은 발자욱’ 역시 ‘눈물이 고이었던’이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 화자가 느꼈을 슬픔과 연관된다. 이처럼 ‘하얀 뉘’와 ‘붉은 발자욱’은 모두 애상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슬한 하늘에 뜬 연’,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에 빗대어 ‘아슬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연실’의 긴장을 보며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3연에서 연실이 ‘끓어’저 울었던 상황과 연결되므로 정서의 고조를 유발한 것이다.

③ 3연에서는 ‘올다’를 반복하고 있고, 4연에서는 ‘눈물이 고이었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내 어린 날’이 힘들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2연에서 화자는 연을 보며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데, 1연과 4연에서는 그 시절에 대한 인상과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아실아실’은 위태로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로, 너무 높이 떠 오른 연이 끊어지지 않는 줄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㉓은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산속 마을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음을 함축하고 있다.

② ㉒은 처마 끝에 나래를 묻는 새가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㉑은 흰 빛깔이 보일 듯 말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끊어진 연줄을 보며 서러워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㉕은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외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1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집 이름을 ‘문’이라고 하였고, ‘나’도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는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두 상황 모두 결국 물 가운데 사는 것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위는 자신이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하의 지도’를 보고 자신이 물 가운데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③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물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사람들이 ‘산에 산다’고 하지 않고 ‘물에 산다’고 하는 예를 들어, 신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나 신위가 물을 보지 못하므로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 두 경우를 의미하는 ‘겨우 반걸음을 옮긴 것’과 ‘천 리를 간 것’이 ‘매한가지라 할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나’는 이를 통해 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다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물에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노인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노인이 먹는 음식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천하의 지도’에 그려진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물에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

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지만,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모두 ‘작은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두 소재는 대립이 아니라 유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

19.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땀’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㉓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㉒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쫓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③ ㉕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㉕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맘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20.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뚝단배가 돌아옴)을 돕는 자연 현상으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꿰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뱃’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과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수능)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3.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5~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수능)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프피로박터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진잔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와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 ⑤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6. 윗글로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 ② ㉠과 ㉡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은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 ④ ㉡와 ㉢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7.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①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②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③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④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⑤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8.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는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는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들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의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를 같은 것이 들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쪼끄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 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거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콧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6모)

[장 소제]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사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 그 글에 하였으니,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사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재라!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림이 겹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증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룬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증고혼이 되신 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흠향 하옵소서.’ 하였더라.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홍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사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제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제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탑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반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사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회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배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니,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탑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복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

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투납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홀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백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작자 미상, 「이대봉전」-

* 진진지연(秦晉之緣) : 혼인의 인연.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14. [장 소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번복 도주했다.
-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1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와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은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은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 ② ㉠은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은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 ① 장애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장애왕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②	③	④	⑤
④	①	③	⑤	④
③	③	④	③	③
④				

[1~4]

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제시된 가능세계의 성질 중 완결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단에 따르면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 모두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명제인데, 전자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는 데 비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서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A의 거짓임이 “만약 A이면 B이다.”를 참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도 “만약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모든 가능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2문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은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이므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①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①과 ④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즉,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①이 참인 경우에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므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와 ①이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④는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④가 거짓이라는 것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⑤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와 ④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문단의 정의에 따르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모두 참일 수 있다.

3.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는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을 하는 세계와,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을 하지 않는 세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세계 중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유사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③의 진술이 ①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3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④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여야 한다.

④ 3문단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①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④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⑤ ④에 대한 답변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①과 같은 질문을 왜 하는지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④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4.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명제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반대관계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 가능하다. 즉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만 참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문단의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이므로 배중률을 이야기할 수 없고, 따라서 완결성도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완결성은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P이거나 ~P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P인 가능세계가 있거나 ~P인 가능세계가 있다는 원리가 아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가능세계의 포괄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③ 배중률이 성립하려면 두 명제가 P와 ~P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두 명제는 둘 다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모순 관계, 즉 P와 ~P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완결성을 논할 수 없다.

⑤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므로, 달리 말하면,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5~8]

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과 얹혀 있는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은 F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통해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얹혀 있는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고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으며, 반추위 미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유발된다.

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⑥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은 젖산 생성 미생물로서 산성도에 따라 젖산의 배출 양에만 영향을 줄 뿐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은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며, ⑥는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 ⑥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이 가진 효소 복합체는 포도당을 분해하며, ㉠은 포도당을 생존 유지와 성장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배출하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또 ⑥ 역시 산성도가 중성일 때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아세트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할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 이하로 떨어지므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한 ㉠은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의 섭취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 ⑥의 생장이 촉진되어 젖산 배출이 증가하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은 세포 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여 생장이 감소하고, ㉠은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다.

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다. 또 비섬유소도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에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③, ④, ⑤). 하지만 섬유소가 F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이 되고, 비섬유소가 S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에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F는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데 이때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S는 산성도에 따라 아세트산과 에탄올,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며, 이 중 아세트산과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F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다. 산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대사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숙신산의 배출은 반추위의 산성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비섬유소인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

성도가 높을 때 대사산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중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프로피온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의 양도 증가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식노젠(F)이 분해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가 pH 6.0 이하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가 산성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9~12]

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정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쑤신 증상 때문에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11.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은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겨드랑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 ㉡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 ㉡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화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이 돈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점을 고려하면, ‘파마늘’이 돈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윗글에서 ‘날개’가 ‘콧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콧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13~16]

1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이대봉은 ㉔에서 ‘팔 년을 의탁하’다가 ‘아버지 유골이 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보고자’ 중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㉔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대봉은 ㉑이 아닌 ‘농서’에서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었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다.

② ㉒은 ‘홍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함몰’한 곳이므로 홍노가 침범한 곳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대봉은 ‘금릉’에 이르러 ‘적군을 파하고’, ‘서릉도’에 들어가 홍노를 배웠으므로 ㉒이 홍노를 처단한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③ ㉓은 장 한림 부부가 아니라, 이 시랑과 그의 아들 대봉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유배’가게 된 공간이다. ⑤ ㉕은 이대봉이 ‘동돌수를 배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한 공간이므로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장 소저는 제문에서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이 이 시랑이 억울하게 유배 가게 된 것과 딸의 혼약이 어그러진 것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로 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 소저가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 소저는 제문에서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 소저는 제문에서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 소저는 제문에서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변복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장 소저는 상표에서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해설 : ㉔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소첩’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㉕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㉔와 ㉕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는 제문으로 장 소저가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앞에서 망자인 이 시랑에게 바치는 글이고, ㉕는 표문으로 이대봉이 ‘황상 용담 하에’, 즉 성상에게 바치는 글이다.

② ㉔는 장 소저가 상대방인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고 억울하게 ‘수중고혼’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원통함을 ‘한 잔 술을 바치’면서 위로하기 위한 글이고, ㉕는 이대봉이 상대방인 황상에게 자신과 부친이 ‘왕희의 모함을 입’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일과,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로서 무고한 사람에 대해 살해를 사주하였다는 사건의 경과를 알려 왕희에 대해 ‘엄형 국문하’는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④ ㉔에서 장 소저는 대인 부자가 억울하게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제문을 바친 것이다. 하지만 ㉕를 통해 이대봉 부자가 생존하여 있다는 사건의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장 소저의 생각이 오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⑤ ㉔의 서두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은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이고, 상대는 ‘이부 시랑 이 공’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㉕의 서두에서도 글을 바치는 사람은 ‘죄신 이대봉’이고, 상대는 ‘황상’임을 밝히고 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할 때,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부친인 이 시랑과 재회한 사건은 가문의 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이대봉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공적 활약을 펼치는 데에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애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추구하고 관련되고,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여 대공을 세우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왕은 혼약을 이루고자 대공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적 목표의 추구가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난신 왕회를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하고, 장애왕이 왕회를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한 것은 개인의 원통함을 풀기 위함이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왕이 난신 왕회를 먼저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것에는 공적 권위를 우선으로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대봉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였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출전하였다. 이대봉은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성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하는 공을 세운 것은 공적 가치인 충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고, 왕회를 처벌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한 공을 드러내면서 황제에게 왕회의 처벌을 요구한 것에는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적 목표인 왕회를 처벌하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4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파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파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파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파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파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파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2. 밑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파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파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파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3. 밑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4. 밑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6모)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턴의 과정 이론이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

[A] 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 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4가 과정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 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6.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ㅁ	

- ① ㄱ: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 ② ㄴ: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 ③ ㄷ: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 ④ ㄹ: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음.
- ⑤ ㅁ: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 ④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9.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재이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 ②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 ③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 ④ ㉡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10.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덕이 잘 담긴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①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②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은 새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하겠군.

11.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②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③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④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중이다.
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수능)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쯤이 쳐.

[A]

픽엄 픽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싼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릿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멧목**을 타고
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일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복쟁**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를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운 데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서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뻗음이 늘어진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均一)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 를 발표하면서 ‘윤패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4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 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15.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16.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래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땃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룩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꾸밈히 두레를 먹던 ①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 널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메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 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승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19.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치어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곤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②	④	⑤	⑤	②
③	④	④	②	②
①	③	③	②	④
①	④	②	④	①

[1~5]

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의하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좌인은 2문단에서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해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②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좌인은 4문단에서 지식의 변화가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로 보았다. 따라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좌인은 3문단에서 분석 명제가 지니는 순환성을 밝힘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인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고, 4문단에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과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좌인은 2문단에서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고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예측이 도출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④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은 분석 명제, 과학적 지식은 종합 명제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로 판단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4문단에서 좌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과 같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시험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은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2.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좌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것을 부정한다. 두 번째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의적 표현은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는 맥락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성 개념은 다시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라는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면서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의하면 포퍼는 예측이 맞을 경우보다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총각을 한 명 조사하여 미혼임을 확인하는 경험적 방법은 분석 명제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좌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이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했을 때 참, 거짓이 바뀌는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 입장에서는 ⑥(예측)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전체 지식인 ③의 수정을 통해 가설인 ④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인 ④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로 인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설인 ④와 전체 지식인 ③로부터 예측인 ⑥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는 전체 지식인 ③의 주변부, 즉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중심부 지식 중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과 같이, 경험과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총체주의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예측과 경험의 충돌로 인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반드시 틀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②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뀌 쓰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다르다’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잇따르다’는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봉착하다’는 ‘어떤 상태에 부딪치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기인하다’는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의 의미이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6~11]

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새면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새면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새면의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는 동중서의 재이론이 천전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이를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는 동중서의 재이론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인과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로서 재이론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대의 동중서의 재이론, 동중서 이후의 예언화 경향, 송대의 주희의 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면의 과정 이론을, (나)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을 다루어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한대의 재이론에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재이론에서의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은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인과 관계 그 자체는 흥미 지적하였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천문학의 발달로 일월식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송대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주희가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

은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태에는 일월식을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내는 과정 2와 교차하면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 없어진 채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스크린상의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한 것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에 따른 것으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결과는 아니다. 2문단에서 교차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3은 교차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② 과정 이론에서는 두 과정이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A]에서는 과정 1과 과정 2가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교차하였고, 이 교차로 인해 변화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A]에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b 지점까지 줄곧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과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하여 도입된 표지는 그 지점을 지나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하면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티로폼이 부착된 스크린의 한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지점에서는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즉 인간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 결국 ㉠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이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과거의 인간사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

므로 ㉠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③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은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을 강조하고 정치와 재이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④ ㉢이 누적된 실정으로 인해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재이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⑤ ㉣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군주의 누적된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재이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에서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였다.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기는 동중서의 재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흠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에서는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 이론은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보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과 전달로 인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과학적으로 인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에서는 덕이 잘 닦인 치세에는 재이가 없고 난세에는 변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였다. 이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동중서의 생각,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희의 생각과 상통한다.

④ ㉣는 덕이 잘 닦이지 못한 난세에 재이와 세상의 변고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의 교차를 통해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을 통해서는 ㉣를 설명할 수 없다.

⑤ ㉣에서는 지방관의 실정이 원인이 되어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새먼은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를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먼은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지방관의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1.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과 '대책을 찾으려'의 '찾으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뜻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라는 뜻이다.

③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뜻이다. ④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⑤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12~17]

12.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그 실마리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인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도 역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 (다)는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장소에 대한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1문단에 자연과 교감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가)의 [C]에서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그넷줄’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이육사는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A]에서

보듯이, 작품에는 그곳이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으로 나타나 있다. ‘구겨진’,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등은 ‘유폐된’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시어들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 ‘종달새 소리’ 등으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봄날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말매나물’은 봄에 낮은 지대의 밭이나 들에서 자라는 ‘말냉이’의 방언이다.

④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 애써 지은 농사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 현실 너머의 세계(‘북극’)를 꿈꾸는 소년(‘곰처럼 어린 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에 나타난 삭막한 겨울 이미지는 <보기>에 제시된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4.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서 보듯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9~11행에서 화자는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놓는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화자가 ‘그(산)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도 묻히리니’라고 한 데에서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2~15행의 ‘그리운’, ‘그리며’, ‘그리며 산다’ 등의 시어에서 ‘산’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⑤ 7행에서 보듯이 ‘산’은 화자가 ‘본시’ 사랑하는 대상이며, 8행에서 보듯이 ‘평생’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으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즉 화자에게 ‘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이다.

15. 작가의 관점 및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견주어 보면서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공고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의 쓰임새에 기준을 두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범상한 화초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가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연에서 ‘목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목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목화는 ‘좁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연부터 이어지는 ‘목화’의 ‘그림 조각’들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서 ‘북창’을 통해 보이는 ‘산’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산’을 말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고향’을 그린 ‘좁이 친’ ‘목화’는 오래 세월이 흘러 낡고 현 그림이다. 그러므로 ‘좁이 친’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오늘’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는 ‘장거릴’ 등지게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보듯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는 ‘오늘’을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④ (가)의 1, 2연에 의하면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목화’의 ‘떠엄 떠엄 보이는’ 조각이다. 그것은 화자가 분절하여 제시한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부분적으로만 떠오르는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떠엄 떠엄 보이는 그림 조

각’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산’은 ‘고요하고 너그르’우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⑤ (가)의 2~3연에는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가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역시 ‘목화’에 그려진 ‘그림 조각’의 일부이다. ‘모매꽃’은 ‘메꽃’의 방언으로 붉은 붉은색을 띠는 들꽃이다. 그러므로 ‘모매꽃’을 통해 ‘가시내’ 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겹쳐진 덕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 시어이므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다.

1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고려할 때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젊은이들은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젊은이들이 탄 ‘땃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장거리’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서는 거

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져 여물로 쓰이는 것인 반면,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8~20]

1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그’가 이사 온 후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의 교묘한 술수에 달려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마져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기만적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에 의해 우매한 군중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들의 비열한 통치 전략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며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수수력’, ‘미끈당’은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고, 경이로운 상상 세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④ (가)에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변주한 ‘가자’, ‘가자꾸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적 청자인 ‘향’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청유형 어조로 전달할 뿐 위로하는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19.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이며,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무끼며 떼지어 춤추던’ 곳이다. 이처럼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상징한다. ㉡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렸던 공간인데, 유리 담장이 모두 깨지자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날’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은 ‘아이들이’ 철없이 놀이만 즐기다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추방 이외에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로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므로 낯선 공간은 아니다. ㉡은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추방당하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일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개성이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둘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그’에 의해 ‘아이들이’ 굴종당하는 곳으로,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 미개지’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고 한 것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지금의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떼어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리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판 담장을 세우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흥내’는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무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 수능 예시문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로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A]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

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1.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에게 추천합니다.

- ㉠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 ㉡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 ㉢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3.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 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시 물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 : 독립적인 존재인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모)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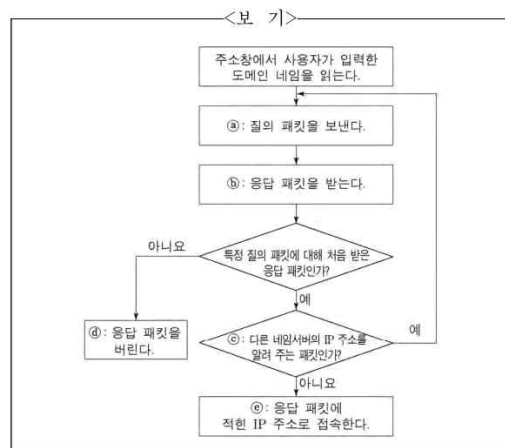
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7. 위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 ②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 ③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 ⑤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8. <보기>는 ㉦ 또는 ㉦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 :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 ② ㉦ :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도 동일하다.
- ③ ㉦ : ㉤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 ④ ㉦ : ㉤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 :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실 IP 주소로 변환한다.
- ②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 ④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10.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hosts'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 ②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③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 ④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11.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제조(製造)되는
- ② ㉡ : 표시(標示)한다
- ③ ㉢ : 발생(發生)된
- ④ ㉣ : 인정(認定)한
- ⑤ ㉤ : 비교(比較)해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중모리] 그때에 사슴이 발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피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각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피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름을 피우며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허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제 무슨 아침으로 내 잘 맡는 자랑하여 심산 궁곡 층암절벽 찾고 찾아 들어와 동계 간 살해만 하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잡수오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게 미치오리다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아 먹었으면 내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라다녀 어설피 몰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환이 쑥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팔천리를 아랫쪽으로 밀고 오자니 아랫력이 뺏뺏하여 토자가 살짝 늘어져 호자로 되었것다 저기 호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받기 듣고 내려오니

[옛모리] 뱀 내려온다 뱀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흘리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눕고 땅이 뚝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굴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둥굴아 하고 불려도 대답이 없것다 옳다 이것 한 입가심 허여 볼까 자라가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보아라 도리춤치 속에 배암 잡아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겁집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받기 듣고 일시구나 좋으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 으르르르앙 하고 달려드니 자라 듣고 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어 죽을 놈이 **동 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하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

랑이 ㉔깜짝 놀래 예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 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나는 수궁 전옥주 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도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㉕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똑 떨어져 목으로 잘 각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얏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한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꼭 물고 뺨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㉖질색하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한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는되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꼭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랴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듯 조총에서 철환 단듯 오림에서 조조 단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났다 뉘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뽕조름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겠다 예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㉗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군었으려다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였다.
- ②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 ③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 ④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

13. ㉑~㉗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 ② ㉒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으로,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하였다.
- ③ ㉓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호랑이는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 ④ ㉔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협에 빠지게 된 공간이며, ㉕은 자라가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다.
- ⑤ ㉖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며, ㉗은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다

14.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과 ㉒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갖춘 상대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② ㉒와 ㉓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③ ㉓와 ㉔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 ④ ㉔와 ㉕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다.
- ⑤ ㉕와 ㉖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15.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수궁가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까지 댈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잡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갖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늑이 살아나구, 살 늑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줌 쳐 바라……. 증증 따근허게

테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려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 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줄라낼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켤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뺏기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C] 팔할 가까운 토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 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킨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네,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잡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뜰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 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국 현병.

16. 위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챈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 ‘있었던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①	①	④	③
③	④	③	②	⑤
②	②	④	③	②
③	①	③	⑤	

[1~6]

1. 정답 ⑤

[정답인 이유] 이 지문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두 견해인 이원론과 동일론의 대립적인 주장을 다루고 있다. 선택지 후반부의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에 이 지문이 해당 하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은 지문의 중심 내용과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 ①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이 아니다.

2. 정답 ①

[정답인 이유] 4문단에서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발생한 일은 다산이 목민심서를 쓴 일이다.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생각할 때,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의심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

- ② 이원론은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ex - 컴퓨터)는 비물리적인 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립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이지만 그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은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지 여부’가 ‘물리적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짓는가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라이프니츠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다. 동일한 대상이라면 똑같은 특성을 가질 것이고, 조금이라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면 두 대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원론자이다. 2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정신이 가진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으로 바로 이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수행하는 기계가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 정답 ①

[정답인 이유] 동일론은 정신에 대해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기술의 발달이 무한히 진행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육체와 같은 물리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동일론자들은 육체 중에서도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1문단의 마지막에서 동일론이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해나가는 것이 이 글의 전체 내용임을 생각해보면, 3문단에서 ‘컴퓨터 언어’가 인간이 쓰는 언어와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만을 보인다는 내용은 동일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론자들은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는 것을 부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답하게 될 것이다.

[오답인 이유]

- ②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인간과 종류가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과는 다른 정신을 컴퓨터가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 ④ 동일론자들은 컴퓨터가 정신을 가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일론자들은 컴퓨터가 정신을 가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④

[정답인 이유] 해당 선택지에서 언급한 <보기>에서의 (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기 +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이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의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 ① 단순성의 원리는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내용을 갖는다. 여기에서 더 복잡한 것을 ‘악령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절한 내용이다.
- ② 1문단 마지막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언가가 독

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즉, 악령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의미하기에 적절한 선택지이다.

③ 이 선택지의 근거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원론자는 정신도 그렇다고 말하며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인데 원자나 엑스선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원론자들이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태양이 존재한다 + 존재하지 않는다’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모순이다. ‘하늘에 태양이 존재한다’를 ‘존재하지 않는다’로써 야에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이 불가능하다.

‘왼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 모순적이지 않다. 앞말을 부정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이 가능하다.

모순된 것이 아닐 때, 생각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나)의 각 항목은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5. 정답 ③

[정답인 이유] 결국 이원론은 ‘아무리 그래도 인간과 기계는 달라.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이 있어.’와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3번 선택지만 다른 내용을 말한다. 동일론에서는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앞선 문제에서 여러 근거를 통해 확인했듯이 동일론에서는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다. 잘못 비판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②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④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수학적 추론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6. 정답 ③

[정답인 이유] 존재한다고 해서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론자에 해당하는 데카르트는 물질만이 화학적 조성을 띠고 정신은 화학적 조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

[7~11]

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문단들을 보면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이다. 따라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의하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글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2문단), DHCP 프로토콜(3문단), UDP 프로토콜(5문단)이라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단에서 이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5문단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다. ㉓는 클라이언트가 ㉑에서 네임서버에 보낸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네임서버는 자신의 목록에 해당 IP 주소가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므로,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보면, 네임 서버는 질의 내용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신의 목록에서 찾다가, 자신의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알려 주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㉔에서 ㉑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므로 수신 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

② ㉔에서 ㉑가 두 번 동작했다면, 질의 패킷을 받은 첫 번째 네임서버의 목록에 질의를 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받아 ㉑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㉑가 동작한 것이다. 즉 첫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다른(두 번째)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요청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 네임서버와 두 번째 네임서버로 서로 다르므로 송신측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는 응답 패킷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6문단에 의하면 ㉢의 상황에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5문단에 의하면 UDP는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 상황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은 공격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네임서버가 보낸 것이다. 따라서 ㉣에는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옳은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⑤ ㉣ 상황에서 ㉢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

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보면 사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 IP 주소가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같은 것은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DNS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에 의하면 이때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였고, DNS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NS가 필요 없는데, 3문단에서 사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유동 IP 주소는 DHCP가 각 컴퓨터에 부여하는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2문단에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④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가 중복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 IP 주소 방식은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지의 내용대로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하면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이 되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도 동일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1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지문에 따르면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hosts' 파일에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적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보기>에 제시된, 클라이언트가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이다.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hosts 파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해 해당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아니다.

1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IP 주소를 숫자로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인 ㉢은 외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는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내 보이다'의 뜻을 가진 '표시(標示)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포함된 문장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유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 것이다. 이때 ㉣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생성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제조(製造)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설명한 것으로, 도메인 네임이 어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은 문맥상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

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성(構成)되다'이다. '발생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정(認定)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패킷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다. 이때 ㉡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UDP 프로토콜의 '방식에 따라' 혹은 '그 방식을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비교(比較)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법칙 따위를 고찰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2~15]

1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별주부가 '토 선생 계시오'라고 부른다는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자라를 보고 '입가심 허여 불까' 한다. 그러자 자라는 깜짝 놀라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라고 묻고 호랑이는 자신을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 이라고 답한다. 이에 자라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라가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슴은 발문하면서 호랑이에게 '수령님의 좋은 피를 일러'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호랑이는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드름을 피우며'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하고 있으므로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별주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앞에서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한다. 이에 깜짝 놀란 호랑이가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라고 묻자 별주부는 자신의 '목'에대한 내력을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도리랑귀신'에게 '이 호랑이 배 갈라라'라고 외치는 방식으로 호랑이를 속이며 '호랑이 아랫도리를 꼭 물고' 만다. 따라서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고 할 수 있다.

④ 별주부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꼭 물고 뽕 돌아 놓'자 호랑이는 자라에게 사정사정하게 되고, 이에 자라가 '쓸개만 내보라'라고 하자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겠다고 한다. 그러자 별주부는 호랑이가 '얼죽검이 된 모양이'라고 판단하여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는다. 따라서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죽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는 '전라도 해남에서 뱀다 뛰'어 '의주 압록강 가에서' 한숨을 돌리는데, 남생이를 발견하고는 별주부로 착각하고 '또 후다닥 뽕 놓'아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 다다른다. 따라서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자라는 '토 선생 계시오'라고 할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하여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목이 '이 모양 된 내력'을 늘어놓기 위해 ㉡에서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 무서운 인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슴의 발문을 들은 호랑이가 '모족'들의 의견을 두루 청하고 토끼가 대책을 여쭙고 있다. 이때 별주부가 '호 생원 계시오'라고 호랑이를 잘못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는 잡아먹으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간신히 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와 호랑이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에서 호랑이를 만난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 목'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내력'을 언급하면서 목을 고치기 위해 '도리랑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가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자라를 피해 도망한 호랑이는 '압록강 가'에서 남생이를 별주부로 착각하고는 ㉢까지 도망친다. 그리고는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따라서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에서 호랑이는 사슴과 토끼에게 '수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호랑이가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굴었으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1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는 '한 입가심 허여 불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은 자신의 '아랫도리를 꼭 물고 뽕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와 ㉠은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자라의 '호 생원 계시오'라는 말을 들은 호

랑이의 반응으로 호랑이가 예의를 갖춘 자라의 태도에 대한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㉑는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늦고 땅이 뚝 꺼지던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한 자라의 반응으로 자라가 예의를 갖춘 호랑이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없다.

㉒는 ‘주홍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늦고 땅이 뚝 꺼지던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㉓는 ‘한 입가심 허여 볼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㉑와 ㉓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㉔ ㉕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라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 날 만났구나’ 하며 반기는 반응이며, ㉖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㉔는 호랑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㉖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㉗ ㉘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며, ㉙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짹 물고 뺨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㉘와 ㉙는 상대의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 보이는 호랑이의 반응이므로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15.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별주부는 호랑이가 ‘자라’든, ‘두꺼비’든 ‘납생이’든 ‘맛진 진미’를 맛볼 수 있으리라며 기뻐하는 호랑이의 모습에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 즉 자라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것을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㉑ 토끼는 ‘같은 우리 모족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면서 ‘무슨 아침으로 내 잘 맡는 자랑’을 하면서 ‘십산공곡 증암절벽’까지 들어와 ‘동제 간 살해만 허’냐며 사냥개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어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는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㉒ 호랑이는 토끼의 청대로 사냥개를 ‘다 잡아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았겠지만 포수로 인해 자신이 다 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포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 줌으로써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

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는, 호랑이보다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호랑이가 위신을 잃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 ‘호랑이 아랫도리를 짹 물고’ 있는 자라에게 호랑이는 자신이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으며, 자신이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것은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㉕ 호랑이는 자라를 피해 ‘전라도 해남’에서 ‘의주 압록강 가’까지 ‘땀 뿜어’ 도망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댔던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19]

1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열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㉑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㉒ 방삼복은 술을 정중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중을 대위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㉔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㉑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㉒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㉑과 ㉒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

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8.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A]에서 '그의 광에는~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 [C]에서 '있었더라'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 [D]에서 '백 주사가,~ 고리대금을 하고 하얏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6모)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음’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조차도 그 범위를 확장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충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충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충위에서는 그 충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충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추상화 충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

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 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 ②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 ③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 ④ 추상화 충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충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 ⑤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2.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 ② 주체가 어떤 추상화 충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 ③ 추상화 충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충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 ⑤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 ㉥.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① ㉢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② ㉣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③ ㉤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 ⑤ ㉦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4. <보기>는 플로리다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 의지는 없는 인공 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AI-TCS)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 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플로리다 :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변형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학생 : 선생님께서는 (㉠) 보시는군요.

-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 ②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 ③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 ④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
- ⑤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5학년도 수능)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에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5. 학생이 읽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②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 ③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④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 ⑤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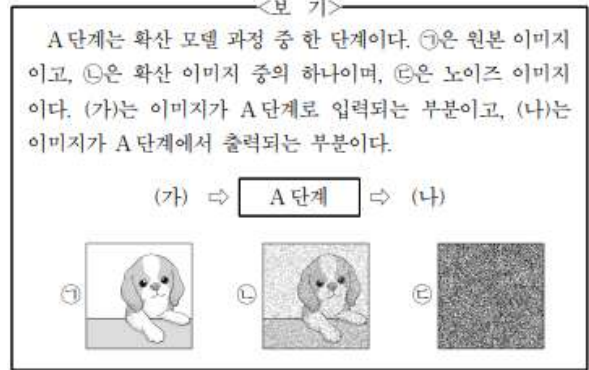
6. 읽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 ②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③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 ⑤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7.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 ②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 ③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 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8.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 ②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 ③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 ④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서 노이즈를 빼겠군.
- ⑤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6모)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 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빠지 않고 들르는 **지계꾼이 있다**. 은행 문 앞에 지계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셋 나보이는 그 끼면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뭘지요?”

“예, 예, 저어…….”

“여긴 은행이오,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오?”

“저금을 조금두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계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백 원짜리 지폐 다섯 장과 새로 생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A]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뺏뺏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굵신굵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 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향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이백 원 혹은 삼백 원 또 어떤 날은 오백 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어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엘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문퐁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루……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기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쓴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계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장가갔다. 썩 썩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갔다. 신랑은읍의 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나는 **비시지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걸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났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 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 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걸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전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이법선, 표구된 휴지 -

9.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②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③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 ④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 ⑤ ‘화가’는 표구한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10.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11.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②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 ③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 ⑤ 채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 ① ㉠에서 ‘지계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 ② ㉢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를 다시 이어 간 것은,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 ③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 ④ ㉠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 ⑤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9모)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배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놓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달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①차레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벌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어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길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간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충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러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정관 : 술.

(나)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동문에 패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
 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피**에 얻진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 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소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괴**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패관하고 :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헌, 석문가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된 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③ ㉢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 ④ ㉣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⑤ ㉤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⑤ ㉠은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피'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청계번'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룬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기'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③	⑤	①	②	③
①	⑤	③	⑤	⑤
②	②	②	①	②
①				

[1~4]

1.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하며,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경험주의에서의 ‘있음’은 ‘경험될 수 있다’의 뜻으로 정의되지만,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의 뜻으로 정의된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예시에 따르면,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사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영향을 주고 받는 정보가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즉, 생략되는 정보는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이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 둘 이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추상화 층위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세계에 대한 정보는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인포그의 정보는 주체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첩된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그가 속한 공간, 즉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인포그가 속한 공간을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또한 3문단에서는 인포스피어를 주체와 대상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포그는 특정 층위에 따라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3문단에서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포그들이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공간이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로리디는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빵의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빵이 맛있다’라는 음성 정보가 촉발된다는 예시를 고려할 때 모든 정보가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진술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단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진술은 인간중심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이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며,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체가 속한 공간이 주체가 택하는 인식적 매개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는 진술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며,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생명 중심 윤리학에서는 도덕의 주체와 도덕적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 따라서 인공물이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반면 플로리디의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공물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과 상충한다.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칸트와 달리 AI-TCS가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플로리디는 AI-TCS를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로 본다. 그러므로 AI-TCS에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플로리디와 칸트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호모포이에티쿠스는 인포스피어의 변형을 감독할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와 구별된다. 플로리디는 AI-TCS를 도덕 행위자로는 간주하지만, AI-TCS에 책임을 지을 수 없으므로 호모포이에티쿠스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한편 칸트 윤리학의 관점에서 AI-TCS는

자유 의지를 갖지 않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도덕 행위자가 되지 못하는 존재이다.

③ <보기>에서 호모포이에티쿠스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포스피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인간을 가리킨다. 플로리디는 호모포이에티쿠스가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예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므로,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AI-TCS와 같은 인공물은 도덕적 주체나 도덕적 평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플로리디는 AI-TCS와 같은 인공물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플로리디의 관점에서 AI-TCS는 인포그로서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며 다른 인포그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는 AI-TCS와 같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포스피어의 변형을 위해 호모포이에티쿠스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5~8]

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이 글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이즈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확산 모델을 구성하는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방법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확산 모델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순확산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역확산 과정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노이즈 예측기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잠재 표현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의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를 예측하는 원리나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은 것은 적절하다.

⑤ 헤겔은 예술을 절대정신의 한 형태로 보았고,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한 헤겔의 말을 듣고 (나)의 글쓴이가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만든다고 하였다. 한편 4문단에서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미지 연산기가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빼서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을 통해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순확산 과정에서의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역확산 과정에서의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이즈 예측기는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다.

④ 3문단을 통해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 유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다고 하였다.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노이즈 예측기에 확산 이미지를 입력하면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에서 구한 잠재 표현에 따라 예측되는 노이즈도 달라질 것이다.

③ 2문단에서 확산 모델의 학습은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입력받은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는데, 이 수치들이 잠재 표현이다. 따라서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은 단계별로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구하는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의 확산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 ㉡의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것이다.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 ㉠의 원본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② (나)에 ㉡의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을 것이다.

④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의 노이즈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⑤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의 확산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에는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어 노이즈 이미지나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9~12]

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화실에 액자를 걸어 둔 화가는 액자가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고 하였다. 또한 그 액자에 표구된 편지를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가'는 편지를 표구할 수 있는냐는 '친구'의 질문에, 편지가 창호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표구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화가'가 편지를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창호지로 지칭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가'는 '친구'가 가져온 종이를 표구해서 무엇하나, 그 종이는 어디서 주워 온 '휴지'냐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가'는 '친구'가 가져온 종이를 주워 온 '휴지'라고 칭하며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가'가 눈앞의 종이를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표구사 주인'은 '화가'가 종이를 국보급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구사 주인'이 '화가'가 말한 것과 같이 그 종이가 국보급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가'는 표구를 맡긴 것을 잊고 있다가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자 갑자기 표구를 맡긴 사실을 기억하고 표구사로 간다. 그리고 표구사에서 표구된 액자를 보며 그 종이가 정말 국보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가'가 자신이 맡긴 종이를 국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표구를 찾으러 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은 은행에 방문하여 '여직원'에게 돈의 입금을 부탁하고,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여직

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저만치'는 '청년'과 '여직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한구석'은 은행 안에 있는 '청년'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A]에서는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청년'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청년'과 '여직원' 사이에 대화의 오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한 부분이나 인물을 비판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A]에, '청년'과 '여직원' 사이에 벌어진 일과 '청년'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물 간의 갈등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은행을 찾아온 '청년'이 '여직원'을 만나 돈을 입금하게 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을 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입금을 마친 '청년'은, 통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굵직한 굵직한 절을 하며 조심스럽게 은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며 인물의 빠른 움직임의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의 집에서 온 '편지'에는 순이는 시집을 안 간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와라'라며 아들에게 빨리 장가를 갈 것을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혼사와 관련하여 '청년'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는 편지 내용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편지에는 우물집 할머니, 장손, 곰보 영감 딸, 탄실이, 순이와 관련한 소식이 담겨 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가 수신자인 '청년'에게 해당 인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편지 속에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수신자인 '청년'이 알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줄무그라하더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니무슨주변에고기묵진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편지를 쓴 이가 수신자인 '청년'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너가더조타한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수신자인 청년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청년'의 이야기이고 ㉡은 '화가'의 이야기이다. '청년'이 종이에 쓴 돈을 입금해 달라고 '여직원'에게 부탁하고 구석으로 간 내용은 '청년'의 이야기인 대화에 해당하고, '이게' 이후의 내용은 '화가'의 이야기인 외화로, 대화와 외화가 지시표현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게'로 지칭되는 종이는 대화에서 '청

년'이 돈을 썼던 종이이므로 '이게'라고 연결되는 외화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던 내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㉞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었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계꾼이 있단다'라는 말은 '화가'가 '친구'를 통해 들은 내용을 서술한 것이므로 '화가'의 이야기인 외화(㉠)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청년'의 이야기인 내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화(㉠)에서 내화(㉡)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외화에서 '친구'는 '청년'이 가지고 온 종이가 편지이며 그 내용이 재미있다고 '화가'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인용된 편지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모두 틀린 채 주변 인물들의 소식을 짧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외화에서 '화가'가 '편지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שי시 웃'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외화(㉠)에서 '화가'는 '친구'의 비행기가 떠날 때 문득 편지 생각이 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니떠나고메 칠안시서송아지났다.'이다. 그런데 외화의 '떠날'과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떠나고'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으로서, '화가'는 외화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 적혀 있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그길로 표구사로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라는 외화(㉠)의 내용 뒤에는 또 다른 내화(㉢)의 편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인용된 편지 내용 중 '순이는시집안갈까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 어야진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는 앞서 인용되었던 편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같은 편지 내용을 다시 삽입한 것은 외화의 '화가'가 편지 내용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16]

1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전놀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훔날리고 / 고향 산천 찾아오마'라는 부분에서, (나)는 전원에서 생활하다가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라는 부분에서, (다)는 자연을 즐기며 살다가 '백구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라는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충신', '성인'을 떠올리는 것을 관념적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나)에서 '공명을 헤아리'고, '영욕'을 떠올리는 것을 관념적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다)에서는 관념적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하루 해가 짧아 마지못해 일어나는 부분에서 시간

의 유한성으로 인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모두 화자의 구체적 행위는 나타나지만,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다) 모두대상의 이면적 가치를 주목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도 찾을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화전놀이 과정에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무릉원', '소선의 적벽', '이백의 채석' 등 동양적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탈속적 가치의 심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를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탈속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에서는 특별한 공간의 이동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1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전놀이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장식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소선의 적벽'은 중국 고사(송나라 때 소식의 「적벽부」)에 등장하는 명승지로,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이다. 화자는 '소선의 적벽'과 자신이 즐기는 자연을 견주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서산에

지는 해'라는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전놀이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헤아리니'라는 성찰의 행위를 통해 '영욕이 반이로다'라는 세속적 성취를 추구했던 지나온 삶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가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며 현재 화자가 탈속적 공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봄('불한불열 삼춘')을 맞이하여 피어난 자연물로, 화전놀이를 할 수 있는 계절이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로 볼 수 있다. ㉡은 화자가 자연을 벗으로 여기는 몰아일체의 상황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바라보며 태평한 시절을 떠올리는 자연물로,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은 화자가 친밀하게 어울리는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로,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사계절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은 아니다.

④ ㉠ 다음 구절의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를 통해 ㉠은 화자가 주변의 여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일 뿐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⑤ ㉠ 다음 구절의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놓고 무엇하리’를 통해, ㉠은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자연과 물아일체의 상황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물일 뿐,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시냇가’는 화전놀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공간이며, 일상적 생활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일 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나)에서 화자는 전원으로 돌아와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뒤편’의 ‘약’을 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는 것은 사대부가의 여성이 유교적 ‘충’의 가치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은 사대부가의 남성이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수양하는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원(무릉도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나)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청풍’, ‘명월’을 다룬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겁’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은 화전놀이에 참가한 사대부가 여성들이 함께 흥취를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엿볼 수 있다.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은 사대부가 남성인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자족적 흥취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은 평소 시집살이의 굴레에 갇혀 살던 사대부가 여성이 봄철 화전놀이를 하는 날에 느끼는 한시적인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화자가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평생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사대부가 남성인 화자가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6학년도 수능)]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A]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른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2.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

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① •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게네스: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④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도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모)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나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5.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7.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8.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보기 2>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실시간 PCR의 C_t 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_t 값은 ㉠이 (㉤).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6모)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뻑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은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었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은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A]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언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변칙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은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은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 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은 갑자기 불려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출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그걸 못 해? 내 하마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중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려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은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서 것을 느끼며 ㉤정일은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중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은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

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향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회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훑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

[B] 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쪽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떻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건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9.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은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은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11.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떻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의 '공포'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 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 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포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수능)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편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중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충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나?”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건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가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환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두명**을 셋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①“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엮려 마옵소서.”

하며 왈

②“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언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언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언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언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지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곁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응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13. ㉠,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14.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1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응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앉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16.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 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 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회화화된 다.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①	②	③	①
②	④	②	⑤	③
④	②	②	④	①
④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롱게네스는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6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칸트는 '자기의식'이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2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4문단에서 칸트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보고 이러한 구성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라는 것은 4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를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인격은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이고,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글의 의도,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와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를 실재성과 관련하여 구분하면서, 전자는 실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나 후자는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같이 [A]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부터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의 함의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①은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에 대한 반박의 양상을 찾을 수는 없다.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4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것으로, 5문단에서 스트로슨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③ [A]에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2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 칸트

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A]에서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

④ [A]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⑤ [A]에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영혼'을 '생각하는 나'로, '자기의식'을 '나는 생각한다'로 재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각각 1문단의 네 번째 문장, 그리고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스트로슨은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라고 본 5문단의 스트로슨과 달리, 6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통해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나', 즉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와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칸트가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통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의 네 번째 문장에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스트로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로슨이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다고 보고 있음을, 같은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통시적으로 인식되는 신체라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롱게네스 역시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칸트 이전까지 유효했던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인식주체)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기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② 5문단에 제시된 스트로슨의 견해는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보면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동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로슨의 견해에 따르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을은 프로그램과 같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의 인격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동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동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칸트는 상술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인격은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5~8]

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7.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

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PCR의 과정에서 표적 DNA의 양이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초기 농도가 높은 ㉠이 ㉡보다 많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로 정의된다. 사이클의 값이 어머하든 ㉠과 ㉡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이르는 것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동일한 양으로 증폭되었을 때이므로 ㉠에는 '㉡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은 ㉠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표적 DNA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에 비해 빨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Ct값은 ㉠이 작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정답 ②

[9~12]

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일이 경험하거나 감각한 일과 정일의 내면으로 사건의 양상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회상 장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판알, 도장, 물그릇, 어항 등의 사물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일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는 대목에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일의 반복적인 행동은 병을 앓는 아버지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은 '용기를 못 내는 자기'와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모습을 정일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용팔이 상속세를 물지 않을 방안을 정일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계산을 하며 상속세 물지 않을 궁리를 하는 용팔의 모습에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정일이 이러한 용팔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용팔이 정일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에는 용팔이 정일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일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주시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⑤ ㉤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활을 회의를 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정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11.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A]에서 정일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의 언행을 접하며 불쾌함과 미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을 일으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된다. [B]에서 정일은 '물을 보기도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가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도록 '어항'을 늘어놓고, 아버지가 그로 인한 ㉡에도 만족하지 못하자 '흐르는 물'이 보일 수 있게 '드리우는 물줄기'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정일이 용팔의 '웃음'을 미워하며 느낀 불쾌감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홀한 눈'은 ㉣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정일이 용팔에게 '도장'을 내어 준 후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아버지는 ㉣을 느끼려는 '동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B]에서 '꺼멧게 탄 혀'는 심하게 앓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 주는데, 아버지는 '어항'이 환기하는 ㉣을 방편으로 삼아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정일이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정일의 '신경 쇠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신경 쇠약'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B]에서 아버지는 ‘심한 구역’ 이후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갈증을 ㉠을 통해서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은 용팔이 ‘공모’ 요구를 하며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 정일이 느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팔이 정일에게 위임장을 내놓고 도장을 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자, 정일은 그러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고 불쾌감에서 비롯된 ‘심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일은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으면서도 용팔에게 도장을 건네다가 ‘실없이 웃’는 자신이 ‘더 심한 심열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일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일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을 속으로 ‘이 소인 놈!’이라고 하며 경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일은 용팔이 벌이는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불러내고 싶어하지만, 행동을 주저하며 붙잡지 않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팔을 불러낼 기회를 놓친 것을 자신이 ‘정말 후회하’는지에 대해 자문하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④정일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과 달리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의지력’을 느낀다. 또한 그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일은 아버지가 죽음과 싸우는 모습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눈을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주인공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16]

1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미 아는 바’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은 승상이 호첩에게 저간의 상황을 묻고 얻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승상이 월매와 왕비, 옥졸로부터 얻은 정보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의 자백

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전해 받은 승상은 호첩에게 그 ‘연고’를 묻고는 집안에 변이 생겼음을 알고, 전장을 떠나 득달같이 집에 와서 왕비로부터 그동안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이미 아는 바’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총렬부인을 구한 승상이 왕비를 만나 ‘사연’을 듣고 나서 던진 물음이 ㉠이므로 승상이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승상의 물음 ㉡에 대해 왕비는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이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에 대한 왕비의 답변을 들은 승상은 복록을 찾았으나 복록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이미 죽어버렸다. 따라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1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승상에게 사건의 진상을 낱알이 아뢰는 금연의 말을 통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이 자신을 찾은 총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 총렬부인을 침소로 보내어 마치 총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분을 통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누명을 씌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인 총렬부인을 자신의 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복록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 승상은 옥졸을 잡아들여 문초한 결과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임을 알게 된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초하는 과정을 곁에서 보고 있던 왕비는 총렬부인이 누명을 씌웠음을 뒤늦게 알고 양천통곡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인물은 누명을 썼던 인물인 총렬부인이 아니라 왕비라 할 수 있다.

② 승상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누명을 쓴 채로 옥에 갇힌 뻔하다가 가까스로 피신한 총렬부인을 구해 내고, 누명을 씻어 달라는 총렬부인의 말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승상은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인물이 정렬부인임을 알고 크게 노하고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황상께 아뢰고 있으므로 누명을 쓴 인물인 총렬부인의 요청으로 승상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연이 자신을 국문하는 승상에게 털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금연이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아나 마치 총렬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다. 따라서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인 총렬부인이 승상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지 총렬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라

고 할 수 없다.

⑤ 전장을 떠나 급히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금연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총렬부인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따라서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일 때문이지 승상이 자신의 어머니인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1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크게 놀란 원수는 집에 번고가 생겨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중군장에게 군을 인솔하여 돌아오라고 분부하면서 중군장에게 군의 통솔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문 뒷부분에 제시된 상소에 따르면 이미 승상이 서용을 쳐 사로잡았으므로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았다고 명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왕비의 명령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낸 후 총렬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녀에게 묻고 있다.

③ 승상의 문초를 받은 옥졸은 자신이 옥에서 죽은 이가 총렬부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말을 하자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승상의문초를 받은 옥졸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에게 옥중 시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부디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하면서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이 발설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옥졸은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금연을 잡아들여 직접 국문을 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서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따라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섭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굴이 상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옥졸이 승상의 문초에 대답한 말에 따르면 옥졸은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한 옥졸의 이야기를 들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은 옥졸의 입단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니며 총렬부인은 이미 다른 데로 도망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의 시비 월매가 ‘매’를 많이 맞으면 서도 끝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총렬부인의 시비인 금섭처럼 죽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월매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인 왕비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상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그는 대원수로서 서용을 쳐 사로잡은 후에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하던 차에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집애와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아뢰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정을선이 가정 안팎의 사건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전장을 떠나 집으로 온 승상 정을선은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내고 월매와 함께 총렬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구덩이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총렬부인을 구해 낸 승상은 ‘통곡’하고, 총렬부인은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난 참혹한 형상을하고 있으므로 승상과 부인의 모습은 인물의 감정과 고난이 극대화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악녀’의 죄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왕비는 총렬부인의 수난이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정렬부인의 인성 문제에서 비롯하였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정렬부인은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상층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승상의 부인이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는 부분이므로,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회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6모)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 ㉣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

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꿀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꿀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헵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면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꿀은 맛있다.’는,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1.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2.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4.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④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9. ㉣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10.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형성(形成)하기
 ② ㉡ : 누락(漏落)되어
 ③ ㉢ : 도래(到來)한다
 ④ ㉣ : 투과(透過)하는
 ⑤ ㉤ : 소원(疏遠)하여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먹고살기에 바빠서. 도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이…… 글썄요.”

허명두 씨는 하품을 하였다.

“실례지만 선생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 일에……?”

온 씨의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두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나고 따질 뻔하였다.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8·15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역시 그러셨구만.”

“왜? 나를 본 적이라도?”

[A]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허명두 씨는 증오를 억누르며 말했는데 온 씨도 거연히 일어났다.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허명두 씨로서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 보려는 이번 싸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던 이곳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특히 독가촌은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의 환경으

로 따져 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허명두는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한다.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불하를 내게 될 적에는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이었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꽤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날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농촌 부락 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굳혀 놓은 게 사실이었다. 온 씨의 주장은 옳은 것이었다. 허명두 씨의 입장에서 그 그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피땀 흘려 가꾼 땅이 도시의 온갖 잡것들이 논다니를 치는 관광지로 되려는 것을 어찌 귀농 개척자들이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리만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놓고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를 따져 보면서 허명두 씨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하며 화랑동지회의 체험들을 그가 요 근래 부쩍 회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온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 박태순, 독가촌 풍경 -

1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②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③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④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다.
 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예들려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형성된 과정은 ㉡이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 ② ㉠이 처음 퍼진 시점은 ㉡이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 ③ ㉠은 ㉡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이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에는 ㉠을 처음 퍼뜨린 인물이 ㉡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13.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 ②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 ③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다.
- ④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 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윗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허명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인물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 ① ㉠ :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② ㉡ :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화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옳음’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③ ㉢ :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④ ㉣ :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⑤ ㉤ :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화 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여, 인물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학년도 9모)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남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친을 입어 금번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남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할,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소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받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니 답담 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니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남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남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남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남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남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 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종락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남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남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침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 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남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남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남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남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

* 도문 :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5.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6.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17.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 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④	⑤	④	①	①
②	③	①	⑤	②
⑤	⑤	①	③	⑤
②	③	③		

[1~6]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감정을 표현하느냐, 사실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사실의 종류에 따라 용법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서 ‘도둑질은 나쁘다.’가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라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에이어는 분석적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는데, 분석적 문장은 술어가 주어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에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적 용법에 따라 사실을 기술한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도덕 문장이 아니며,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에 따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고 하였다.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가 되든 판단적이다. 그러므로 조건문의 일부인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다.

② 도덕 문장을 포함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굴은 맛있다.’가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즉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④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굴의 속성과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는 없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경우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의 문제 제기였다.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였으므로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따질 수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본 가정을 한다. 그러므로 [진술 1]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술 1]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술 2]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행크스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행크스는 [진술 2]에 동의할 것이다.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 경우 두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만약 에이어의 견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윤리학에서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은 에이어의 윤리학적 견해에 대한 논리학의 비판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에서 두 P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만약 P가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면 두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③ 전건 긍정식이 참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는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전제가 일치해야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게 된다.

④ ‘굴은 맛있다.’처럼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단독적으로 사용되면 선호를 나타내지만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선호를 표현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도덕 문장과 마찬가지로 ㉠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⑤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라고 보는 행크스의 입장에 따르면,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장은 그것이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내용이 달라서 ㉠이

발생할 수 없다.

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주관적 태도에는 참, 거짓이 없다. 즉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은 참, 거짓이 없다.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에이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주장 모두 주관적인 견해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상충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즉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전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보기>에서는 전제의 참, 거짓은 판단할 수 없어도 태도의 일관성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견해는 상충한다.

③ 윤리적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도덕 주체의 감정이나 태도와 분리된 무언가가 있다고 본다. 반면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이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견해는 상충한다.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자선이 옳다.'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보기>에서 '폭력은 나쁘다.'를 주관적 태도로 보는 입장 모두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내놓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수색하다'는 '구석구석 뒤지어 찾다.'의 의미이다.

③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의 의미이다.

④ '발산하다'는 '감정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 해소되거나 분위가 따위가 한곳 드러나다.'의 의미이다.

⑤ '공개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내놓다.'의 의미이다

[7~10]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기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데이터 값이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고 하였으므로,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는 데이터가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점들이 주위에 모여 있는 가상의 직선 L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라고 하였다. 측정 오류 등으로 발생한 데이터 값이라도 그 값과 실제 데이터의 다른 값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라면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8.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그러므로 대푯값을 중앙값으로 설정할 경우 이상치의 값이 중앙값으로 선정된 수치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평균은 이상치의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이유는 중앙값이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특정 데이터가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것과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정렬하여 찾는다.

③ 데이터의 개수와 이상치의 개수는 무관하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평균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의 이유와는 무관하다.

④ 이상치가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이 변화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의 복잡성의 수준에 대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복잡성의 수준과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평균은 이상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수 있다. 한편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이런 경우 중앙값은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9.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A 기법에서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며,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

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그러므로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과의 거리의 허용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상치이더라도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B 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후보 직선을 이루는 두 점에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기법의 후보 직선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그 선 직선이라고 하였고, B 기법에서도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보 직선을 가정할 때 A 기법이 이상치를 제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B 기법은 후보 직선을 임의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B 기법에도 후보 직선을 가정할 때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 L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선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B 기법에서는 이상치를 포함해서 최적의 직선을 찾아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을 버릴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문턱값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에 대한 것이다.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게 된다.

10.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⑤의 ‘빠지다’는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⑥는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져’라는 의미를 지닌 ‘누락되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의 ‘나타나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④를 ‘어떤 형상을 이루기’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하기’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③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③을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다.’라는 의미를 지닌 ‘도래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④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쳐서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④를 ‘장애물에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투과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⑤의 ‘떨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⑤를 ‘지내는 사이가 두렵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

서 서먹서먹하여’라는 의미를 지닌 ‘소원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14]

1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허명두에 대해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허명두가 에둘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허명두는 온 씨의 공격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온 씨의 협박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온 씨는 허명두에 ‘실례지만~ 무슨 청년당 일에……?’라는 질문을, 허명두는 온 씨에게 ‘왜? 나를 본 적이라도?’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라는 구절을 통해 허명두는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증오의 감정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온 씨는 허명두의 말을 듣고 ‘역시 그러셨구만.’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허명두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온 씨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라고 말하여 허명두가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퍼뜨린 ④에는 허명두와 만나 확인한 내용, 즉 허명두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⑥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 씨가 허명두에게 한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⑥의 내용은 허명두가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소문을 들은 온 씨가 허명두와 연쟁을 벌이게 된 것이므로, ④가 형성된 과정은 ⑥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⑥가 퍼지면서 온 씨는 허명두와 만나 연쟁을 벌이게 된 것이고, ④는 온 씨와 허명두의 연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⑥가 퍼진 시점은 ④가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③ ⑥를 들은 온 씨가 허명두와 만나 연쟁을 벌이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④가 ⑥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온 씨가 허명두와 만나 벌인 연쟁의 내용은 ④로 금방 독가촌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허명두가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⑥는 진실이므로,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독가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지만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목 변경으로 인해 기득권을 부여받는 사람은 허명두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 임자이다. 허명두는 이 기득권을 획득하고자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 따라서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독가촌은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굳혀 놓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가촌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독가촌은 농촌 부락으로서 귀농 개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곳이다. 따라서 독가촌이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독가촌은 고속도로와 접속이 될 교통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 독가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의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은 허명두가 상대, 즉 온 씨를 비롯한 독가촌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를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를 허명두가 달리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㉔을 허명두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와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허명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 군'으로 일반화하여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허명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독가촌의 집들을 사들이는 자신의 행동을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독가촌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싸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명분이나 사리의 율음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타당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다는 것은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 즉 실리를 추구하는 선택을 고수하려는 허명두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난 서술로 볼 수 있다.

[15~18]

1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춘양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하며, '아버님 편지가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양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고 어머니 영전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춘양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언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니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해 답답해한다. 이를 통해, 춘양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춘양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주기를 요청할 뿐,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④ 춘양은 동생인 '동춘을 안고'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갔으며, 동춘은 '젓 먹자고' 울 뿐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거나 이를 춘양이 막아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선군은 '태산 같은 정이 ~ 볼 수 없고'라며,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라며 받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③ [B]에서 글쓴이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그림이 전과 ~ 달라 날로 변화'는 것을 보고 짐작을 통해 받는 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라고 하며 상대방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졌음을 말하면서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만, [A]에서는 '천을 입'었다고 말할 뿐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는 않는다.

⑤ [B]에서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라면서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라는 당부 내용이 나오지만, [A]에서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전할 뿐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당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17.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숙영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영이 ‘너무 한탄치’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돌아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㉒: 정 씨는 편지의 수신인이 ‘네 어미’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잘 간수 하라’면서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㉒ ㉓: 정 씨는 ‘춘양아’, ‘동춘아’라고 손주들을 호명하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할 만큼 격해진 감정과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라며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㉒ ㉔: 숙영은 옥황상제의 ‘올라오라’는 부름에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예정된 이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㉓ ㉔: 숙영은 부모가 출지 않게 지내고 기운이 불편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마음으로 ‘백세 무양’을 기원하며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하고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이가 얹드려 고’하는 것은 선군이 부모와의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했을 뿐이지, 숙영 부부가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숙영 부부는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며 ‘세상 연분이 다하였’다고 말하면서 승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것은 숙영 부부가 먼저 천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부모님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 부모님을 천상으로 모셔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㉒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올라가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숙영이 선군에게 인간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재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영 부부의 승천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숙영 부부를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인 가문이라는 명분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천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㉒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 준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㉓ 숙영 부부가 ‘천궁에 올라간 후’, 상공 부부가 ‘망연해하며 세

간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가문의 명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공 부부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6학년도 6모)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 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

[A] 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

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3.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4.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5.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6.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 ② ㉣ :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 ③ ㉤ :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 ④ ㉢ :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 ⑤ ㉣ :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레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

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7.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8.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9.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10.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장면 구성]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 ②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었겠군.
- ③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겠군.
- ④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 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학년도 6모)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매,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급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추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악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달려 한 측, 화답이 또 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홀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릿찌릿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전우치 :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 황궁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톱톱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

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 왕은 고개를 들라.

왕 : 예?

전우치 :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 어땠가?

왕 :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 감히 도사 님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 도사 님이라? 에... 도사는 무엇이나?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석-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 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 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 하하하... 돈을 막 쓰느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11. (가)의 **화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1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4 :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1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씹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1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학년도 9모)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딱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었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회극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지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 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 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②	③	④	④	⑤
①	②	②	④	④
①	②	④	⑤	④
⑤	④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이 각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의 2문단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에 우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 모델들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둘 다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안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A]에서 ㉠'이러한 악순환'이란 법 규범에 의해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면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가 점점 더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상황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게 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이다.

④ ㉠의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의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법 규범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3.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

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갹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후,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의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의 권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임차물이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읊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② (가)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가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은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강조하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선지에 제시된 ‘삼다’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부딪히다’의 문맥상 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게 되거나 마주 대게 되다.’이다.

㉔ ‘어렵다’의 문맥상 의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이다.

㉔ ‘남다’의 문맥상 의미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들인 밀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더 언다.’이다.

㉔ ‘내놓다’의 문맥상 의미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놓다.’이다.

[7~10]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모델링 단계를 설명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하였다. 즉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과정이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지정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모델링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면을 생성하며 각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하여 밝기나 색상을 나타낸다고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려면 자연 영상과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원근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모델링은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물체와 관련한 모든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③ 2문단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고, 렌더링은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전 코어의 연산 이후에 다른 코어에서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 연산 시간은 단일 코어에서 데이터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4문단에서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GPU와 CPU가 각각 1개의 코어에서 1개의 동일한 연산을 할 경우, CPU의 연산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한 번

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장면 3은 풍선과 '네모'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특정한 관찰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장면을 구상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감은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장면 3은 풍선이 그 자체의 크기에 변화 없이 '모양을 유지한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장면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 1에서 관찰 시점상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은 2차원의 화면에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모델링 단계에서의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면 2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모델링에서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화소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으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렌더링 단계에서 장면이 나타난 전체 화면의 화소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면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소의 화소값만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1~15]

1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화답은 전우치의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회롱'한다고 말하며 전우치를 죽이려 한다. 전우치가 사죄하자 화답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선도(仙道)를 닦'기를 권한다. 전우치는 이에 응하여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게 된다. 따라서 '화답'을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끄'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으로 함께 가기를 권유한 인물은 전우치가 아니라 화답이다.

③ 화답은 도술을 써서 달아나는 전우치를 공격하여 제압할 뿐

전우치의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 ④ 화답이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기를 제안하자 전우치가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나라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화답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기로 한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우치의 집에 찾아와 영주산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하였다.

12.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해설 : 전우치는 술법으로 왕과 조정의 신하들을 회롱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우치를 ㉠처럼 나라에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우치는 모친에게 '효'를 이행하기는 하나 '충'을 행하지는 않으므로 충효를 다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얻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도술 능력을 갖게된다. 이는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전우치는 천서를 통해 술법을 습득하게 되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벼슬하여' 입신양명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④ 전우치가 고려국 왕에게 '옥황상제 전교'를 빙자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하는 것은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이다.

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나눠 주고 화답과 함께 영주산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주인공이 나라에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웅 소설의 결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13.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 해설 : [A]에서 전우치가 왕과 헤어지는 장면은 전우치가 탄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과 헤어질 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산수화)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 전우치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하는 설정을 취하여 왕에게 매우 근엄하게 말하나 (나)에서 전우치는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등과 같이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A]에서 전우치는 '모친'을 가급적 빨리 '봉양'하기 위해 계교를 부려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게 하고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전우치는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A]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며 황금을 ‘그날’ 대령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고 위협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전우치가 왕의 꿈에 나타나 내린 명령을 실행한 것에 대해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라며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⑤ [A]에서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에는 요구 사항이 대화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에서 전우치의 요구 사항은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라는 왕의 대사에 포함해 간략히 처리되고 있다.

14.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처음에는 왕의 손짓에 따라 궁중 악사들이 정악 연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후 전우치의 손짓에 따라 악사들은 ‘무엇에 홀린 듯’ 전우치가 좋아하는 다른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왕과 전우치의 주면에 따라 음악이 계속 바뀌거나 이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와 왕과의 갈등은 전우치가 ‘나를 아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을 계기로 왕이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라고 반응하는 것에서 표출된다. 이로써 사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②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는 전우치의 말은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부패한 왕과 대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처음에 왕은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알고 ‘고개를 더 낮추’며 최고의 예우로 대한다. 그러나 이는 전우치의 정체에 밝혀질 때 전우치가 왕을 ‘능멸’한 일이 되고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④ 전우치에게 속은 왕은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떠받들다가 전우치가 정체를 드러내자 ‘도사 놈’으로 바뀌어 부른다. 이로부터 전우치에 대한 왕의 인식이 적대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5.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정답 해설 : ㉔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보기 어렵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도술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번갈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장대비를 내리게 하며 전우치가 땅을 집어 달리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으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㉓: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방법으로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할 수 있다.

② ㉒: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클로즈업(close-up)하여 화면에 가득 담음으로써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③ ㉑: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줌으로써 천군들의 정체를 알게 된 왕이 느끼는 당혹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 왕을 농락하고 떠나는 전우치의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고,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줌으로써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6~17]

1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썩’은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썩’을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굶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정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굶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1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회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 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짤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

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 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1.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2.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3.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4.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5.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루는
- ② ㉡ : 헤아려
- ③ ㉢ : 깨뜨리고
- ④ ㉣ : 이루어지려면
- ⑤ ㉤ : 바로잡고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학년도 수능)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레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

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8.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9.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10.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장면 구성]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②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었겠군.
 ③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④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 이시영, 그리움 -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짹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氣)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제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여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여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샛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샛된 것도 있고, 혹 샛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치면 큰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큰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면 천지를 뒤흔들 듯하나,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할 뿐이다. 금석을 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모두, 연해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오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흠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샛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 중에서 답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14.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 혼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를 짐작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文]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학년도 9모)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꿇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몰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A]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꺾소나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섶거 치고 [B]
여름날 길고 길 제 굵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섶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뗏소리 섶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끓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C]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 작자 미상 -

15.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④	②	⑤	③
⑤	②	②	④	④
⑤	①	④	④	②
④	②	②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인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보증 채무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 않으나,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③ (가)는 담보를 사례로 들어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법조문에 나오는 담보의 의미를 일상적 상황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을 통하여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를 통해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② (가)의 4문단에서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③ (가)의 4문단에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러 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게 원칙이지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고 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문리 해석으로 법조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3. 내용이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

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라도, 이러한 보증 계약이 유상 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인데,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다. 주채무자가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 계약 역시 유상 계약은 아닌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연대 보증인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한 보증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라는 조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지,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아니다.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문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경우 연대 보증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리 해석으로는 연대 보증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역사적 해석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주채무 전액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④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하면서 연대 보증 특약을 하는 것이다. 연대 보증 특약을 채무자와 하는 것이 아니다.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 보증 특약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면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 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이미 보증 채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보증인인 병은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보증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규정(規定)하다’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바로잡다’는 ‘굽거나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성하다’의 의미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이다.

② ‘고려하다’의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이다.

③ ‘파기하다’의 의미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다.’이다.

④ ‘성립하다’의 의미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이다.

[7~10]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모델링 단계를 설명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하였다. 즉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과정이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지정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모델링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면을 생성하며 각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하여 밝기나 색상을 나타낸다고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려면 자연 영상과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원근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미쳐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모델링은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물체와 관련한 모든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③ 2문단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고, 렌더링은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한다면, 이전 코어의 연산 이후에 다른 코어에서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 연산 시간은 단일 코어에서 데이터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4문단에서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GPU와 CPU가 각각 1개의 코어에서 1개의 동일한 연산을 할 경우, CPU의 연산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장면 3은 풍선과 ‘네모’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특정한 관찰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장면을 구상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감은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장면 3은 풍선이 그 자체의 크기에 변화 없이 ‘모양을 유지한 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장면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 1에서 관찰 시점상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은 2차원의 화면에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모델링 단계에서의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면 2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모델링에서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화소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으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렌더링 단계에서 장면 3이 나타난 전체 화면의 화소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화면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소의 화소값만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1~15]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는 ‘그 그림을 날로 자라면’ ‘땡감들’은 ‘주먹송이처럼 커 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그 기다림’ 날로 익고 ‘서러움’까지 익어서, ‘저 질푸른 감들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환하고 ‘하늘’은 부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표현을 통해 그림과 기다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가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문단의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금속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는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문단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등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 흩어지는 소리와 실상이 있는 소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저녁’, ‘밤’, ‘새벽’ 등의 시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는 찾을 수 없다.

② (나)에서 화자는 시적 상황에 대해 탈속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③ (다)에서 글쓴이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세태에 대한 비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찾을 수도 없다.

④ (다)에서는 연쇄의 방식으로 소리를 분류하고 있다. 소리를 ‘쓸모없는 소리-쓸모있는 소리’로, 쓸모 있는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추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실상이 있는 소리-흩어지는 소리’로, 실상이 있는 소리를 ‘바른 것-삿된 것/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 등으로 이어지는 서술이 그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연쇄의 방식으로 결국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을 뿐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우리는 소금을 뿌리며 이 저녁을 떠돌고 있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찾는 그림은 이, 즉 ‘등불 하나 켜 든 이’가 보이지 않고,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밤’은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의미 구조상 ‘보이지 않고’와 ‘들리지 않는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등불 하나 켜 든 이’와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역시 의미상 유사한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우리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이 저녁’을 떠돌고, 별 하나 눈뜨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새벽길’을 넘고 있다. 우리가 ‘오딘 길’을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별빛이 되어 ‘환히 비취 주’는 것을 보며, 화자는 ‘두고 온 것들’이 빛을 뿜으면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의하면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일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생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함께 어둠을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나)는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낸다고 하였으므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가)는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의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에서 그러한 소망을 읽어 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나)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낸다고 하였다.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질푸른 감이 형형 등불 같은 감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다)의 ㉠은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람에 합당’한 경우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잊혀진 한 목소리’가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의 ‘목메이게’ 부르짖는 행위와, ‘찾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에서 ‘숨가쁘게’ 넘고 있는 행위에는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

② 쓸모 있는 소리 중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라고 하였다. ‘좋은 소리’는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람에 합당한 소리라고 하였다. 글로 쓰이지 않았지만 남에게 듣기 좋다면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이다.

③ ‘한 목소리’가 찾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의 소리’가 흠여지는 것은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한 경우이다.

⑤ ‘외마디 소리’는 찾아들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한다.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1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맹감들’은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맹감’은 성숙하여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히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바람만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 화자가 바람이 감나무 잎새만을 흔든다고 여겼다는 내용은 없다.

② 감나무 열매의 완전한 성숙은 ‘형형 등불’의 이미지로,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환하게, 하늘이 부시게 되는 때로 나타나고 있다.

③ ‘오색딱다구리’는 ‘아까’ 갔고, ‘청설모’는 ‘시방’ 내려온다.

⑤ (나)에서 ‘사랑’의 끝남과 ‘이별’은 그리움, 기다림, 서러움의 정서에 이어져 있고, 이러한 내면 정서의 성숙 과정은 자연물인 감나무의 성숙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랑의 시작에 대한 기대는 화자의 태도와 무관하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람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고 하였다.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는 ‘소리’를 화두로 삼아, 만물이 소리를 내는 이치와 좋은 소리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 최립의 문장에 대해 평하고 있다.

③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바람에 합당하다면 ‘좋은 소리’라고 하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립의 문장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최립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람을 향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고 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

[16~18]

16.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빈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메오리’, ‘복’ 등 벼들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자는 이들 소재가 벼를 찧을 때 빠르게 움직이

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취눈 섰 거치고’, ‘꽃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희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희의 필연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술’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임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모)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지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된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

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향유(享有)하기로
- ② ㉢ : 단절(斷絶)하는
- ③ ㉣ : 둔감(鈍感)해져
- ④ ㉤ : 지대(至大)한
- ⑤ ㉥ : 수립(樹立)하였다는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없지만 빛이 렌즈를 ㉔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㉕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㉖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㉗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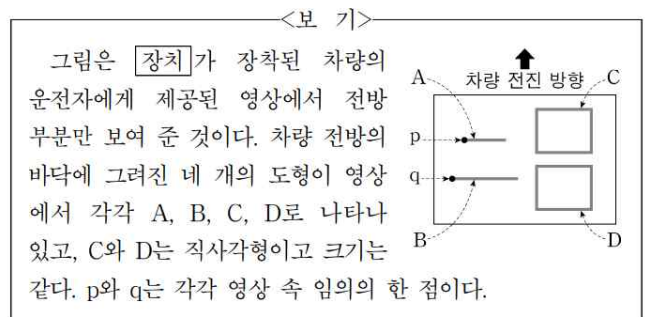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6. ㉔~㉗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㉕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㉕에서는 ㉔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㉕에서는 ㉔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㉕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할 ㉖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㉖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㉗에서 보정되었겠군.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인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8. 문맥상 ㉘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는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9모)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케란(攪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을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움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 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임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화하사 즉일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회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쩔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입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 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어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잠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툭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억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 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땀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 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탈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⑤ 이화는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탈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10.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을 행한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피’를 알려 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잠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9모)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 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또쇠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말아보는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네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탕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퉁장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재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꼬깔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래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삼시간에 마당이 뽁뽁하게 모여 들었다. 원석이 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뚱그란 두 눈을 뻔뻔**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깔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꼬깔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였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그럼 갈 테전 당신도 갑시다.” 하며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깔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선네**를 개울려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중략)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 그러나 읍내의 청년 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을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을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짓**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 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댁에 말해 볼까 하다가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쥬.**”

원석이라도 이렇게 맛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대요.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뽁뽁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데를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을 쳐다보며 발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거나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하고 원석이라도 발을 멈추며 섰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똥뽀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렵어롭니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네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 바지랑대 :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13.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14.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 ② ㉡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③ ㉢는 ㉣가 ㉡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 ④ ㉢는 ㉡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 ⑤ ㉣는 ㉢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② ㉡ :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 ③ ㉢ :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준다.
- ④ ㉣ :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⑤ ㉣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낸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똥그란 두 눈을 뽀뽀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고깔 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뭉실’대며 ‘원네’라고까지 하는 고깔 참봉의 모습에서, 위 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③	⑤	④	②	④
②	④	①	⑤	①
②	⑤	③	④	②
③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사람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며, 이렇게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개인들의 행복, 즉 전체 복리를 위해 주권 관리의 일환으로 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주권자는 개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을 통해, 개인이 자유의 일부를 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법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할애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 조건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했다는 것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라고 전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가 처음에는 크더라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주권은 개개인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과 같다는 것과, 형벌은 주권자가 주권을 관리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주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얻은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고 하였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에 대한 방어 효과가 달성되

로, 형벌이 높게 설정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벌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이 설정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에 따라 그 달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 즉 할애된 자유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과,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즉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보다 다른 형벌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이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보

았다는 점에서 사형이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숙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무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단절(斷絶)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 ⑥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⑥는 ‘막아서 못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저지(沮止)하다’ 정도로 바뀌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향유(享有)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④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③ ‘둔감(鈍感)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③과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④ ‘지대(至大)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④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⑤ ‘수립(樹立)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⑤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5~8]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왜곡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③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왜곡 보정이 끝난 영상을 2차원으로 시점 변환해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즉, 왜곡을 먼저 보정한 후 그 영상들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

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카메라는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점들을 실세계 격자판에 대응시킨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은 2차원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 영상을 의미한다. ㉡은 왜곡 모델이나 실세계 격자판과의 비교를 통해 ㉠에 발생한 왜곡을 보정한 영상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 ‘왜곡 보정이 끝나면’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 수록 물체가 작게 나타나는 원근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시점 변환 이전의 영상인 ㉠과 ㉡은 모두 같은 크기의 물체일지라도 멀수록 작게 보이는 원근 효과가 나타나는 영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에서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게 보일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상의 왜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은 ㉠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보정하여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의 시야각은 ㉡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③ 2문단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즉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나타나는 휘어짐이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을 보정한 ㉡에서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를 보정한 영상이다. 격자판의 위치 변화는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아내 왜곡을 보정할 때 이용되는 것이므로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시점을 변환하여 원근 효과가 제거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면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으므로 물체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같게 나타난다. <보기>의 그림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그림이므로, 전진 방향을 고려할 때 A는 B보다 차량의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고 크기는 작은 도형이다. 따라서 시점을 변환하기 이전의 영상에서는 카메라로부터 B보다 멀리 있는 A가 <보기>의 그림보다 작게 나타났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본 시점의 영상이므로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것이다. 따라서 C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먼 뒷면이 짧게 보이므로 뒷면이 앞면보다 짧은 사다리꼴 모양일 것이다.

② <보기>의 그림은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것이므로 시점 변환 이후의 영상이다. 따라서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가까운 D가 C보다 더 크게 보일 것이다.

③ A와 B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모든 점들과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보기>에서 A는 바닥에 그려진 도형이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p는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따라서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 A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교차로를 지나고'의 '지나다'가 문맥상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⑤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의미로 쓰였다.

[9~12]

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백발 노옹과 노파가 '살리라'고 '소리 지르'자 '성안의 제군이' 다 쓰러지지만 이화가 정신을 차려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이에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나무를 베다. 이를 통해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치며 나무를 베는 것은 이화가 아니라 모든 군사와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화는 여산으로 가기 전에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라고 말하고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였다.

② 이화가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자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이화를 따랐다. 이에 이화는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라고 말하면서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고 호령한다. 이를 통해 이화가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화가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고 호령하자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나무를 베다. 이를 통해 모든 군사가 이화의 호령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든 군사가 나무를 베니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하여 이화에게 나무를 베지 말자고 빈다. 이를 통해 모든 군사가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나무를 베라는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1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이화는 상소하며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였고 '성하에 무익'하여 '주야에 한이 깊'었음을 밝히는데 ㉠을 통해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해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백에게 들은 대로 ㉡을 통해 여백에게 들은 것과 같이 '나무를 베'고 '여우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은 여산에 부임한 원마다 죽자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케란함'에 깊이 근심하다가 이화의 상소를 받고 이화를 여산의 원으로 임명한다. 이를 통해 ㉠은 황폐해진 여산의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여산에 새로 부임한 이화가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이화 자신에 대한 신임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이화의 부모는 이화에게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하며 이화에게 여산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은 이화의 부모가 이화의安危를 염려하는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이화가 여산 백성들에게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았다고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④ 군사들은 이화의 명령인 ㉤을 받들어 '나무를 베'고 요괴를 죽이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군사들이 이화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군사와 백성들은 이화의 명을 받들어 ㉥이라는 결과에 이르자 변란을 해결하고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을 근거로 이화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이화가 여산의 사변을 해결하기 위해 몸소 행한 것으로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 이화가 여산의 괴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을 사람들과 함께 이룬 일이지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11.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이 나무 베시면 ~ 백성이 다 죽기 쉽고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라는 말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은행나무를 베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인 은행나무가 백성과 군사들은 물론 상대방인 이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성주의 명공 신기 ~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요'라는 말에서 상대방인 이화가 모든 군사와 백성에게 미친 긍정적인

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여산의 관리와 백성들이 상대방인 이화에 게 한 말로, 나무를 베면 백성들과 이화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나무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전한 것일 뿐 이러한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이화에게 전한 것은 아니다. [B]는 이화 덕분에 요괴로 인한 변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군사와 백성들이 이화에게 사례하면서 한 말이다. 그런데 처음에 군사와 백성들은 요괴를 잡으라는 이화의 명령을 [A]와 같이 만류했으므로 [B]를 이화에 대한 모든 군사와 백성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의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에서 관리와 백성이 목격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을 것이라는 말은 나무를 베라는 이화의 명령을 만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군사와 백성은 이화와 공유한 경험을 말하며 사례하고 있을 뿐 이화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는 ‘중전 커다란 변란’이있었던 과거의 상황과 ‘이제는 태평을 누리게 된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인 이화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지만, [A]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A]와 [B]에서 모두 상대방인 이화의 지위로 ‘성주’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베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나무 베기를 만류하며 성주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제안은 [A]에서만 나타나고 [B]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화는 여백의 조언에 따라 ‘여우’를 잡지만, ‘수여우’만 잡고 암여우는 놓친다. 이는 여백의 말에 따르면 ‘둘을 다 잡아 내’지 못하여 이화가 ‘목이 베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며, 동시에 ‘보고’를 들은 이화가 대경실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이를 통해 이화가 여백의 조언을 따랐지만 ‘수여우’가 죽은 것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화는 ‘상소’에서 ‘여산의 괴변’으로 ‘본국이 위태’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여산의 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는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

② 이화가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은 ‘애걸’하며 요괴를 처치할 ‘좋은 피’를 알려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여백이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이화는 자물쇠에 갇힌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구인지 묻고 ‘천 년 묵은 여우 한 쌍’을 잡는 방법을 듣게 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 이화가 초현실적 존재인 여백의 혼령과 교섭하는 전기소설로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이화는 여백의 혼령으로부터 ‘여우를 잡’는 방법을 듣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백성과 군사의 힘을 빌리고 있으므로, 이화는 여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이는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에 해당한다.

[13~16]

1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따옴표 속의 말을 통해 청년과 원석의 말이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를 통해 두 인물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겠다는 말’을 통해 간접 인용 표현으로 ‘원석’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원석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원석이는 자기가 ~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와 같은 이야기 외부 서술자의 서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청년과 원석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는다.

⑤ 작품 밖의 관찰자의 시선으로 원석과 청년이 말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1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꼬깔 참봉은 양덕영감이 순사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교’ 가자면서 자신이 순사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순사가 주인을 부르자 유리로 내다보던 노영감, 즉 양덕영감이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쳐 선달이 마당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선달은 꼬깔 참봉이 아니라 양덕영감을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 것이다.

② “당신이 주인이오?”라는 순사의 물음에 선달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뒤로 들어’간 뒤 양덕영감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양덕영감은 순사가 주인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순사를 만났을 뿐, 불안한 상황에 처한 선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순사와의 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꼬깔 참봉은 양덕영감이 주재소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순사에게 자신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허리를 굽실거리며 원네를 개울러 가며 애원’을 하였을 뿐, 순사가 양덕영감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⑤ 순사가 양덕영감을 데리고 가려 하자 꼬깔 참봉이 순사에게 자신이 대신해서 가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순사는 결국 양덕영감과 꼬깔 참봉 모두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1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원석이 자신만 알던 일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참봉에게까지 알려졌음을 깨닫고 놀란 모습이다. 그러나 곧 “응? 치전이 죽었어?” 하고 치전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반응’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에서 원석은 자신에게 ‘죄가 돌아’오는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순사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 ㉢에서 서술자는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년 내’라는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면서, 순사 앞에서 ‘상전 하인이 없’게 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주고 있다.

㉣ ㉣에서 원석은 양덕 댁으로부터 편지를 들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덕 댁에 부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 ㉤에서 ‘또 다른 청년’은 지부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던 일을 거절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양덕영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지랑대’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16.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제 순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당대의 상황을 보여 주는 서술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는 신분제의 상하 관계가 흔들린 것이지 역전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똥그란 두 눈을 뚫어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꼬갈 참봉이 ‘호령’하는 것은, 원석이 양덕 댁 집안의 머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꼬갈 참봉이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청년은 ‘그까짓 뉘’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고 하면서, 신분적 우위를 바탕으로 위세를 떨치던 양덕영감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청년의 말을 통해,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양덕 댁에서 ‘쫓겨나게’ 된 원석은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울로 가서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 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등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석의 모습은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꼬갈 참봉은 ‘굽실’대며 ‘원네’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권력에 대한 두 인물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꼬갈 참봉의 모습은 위 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도)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물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

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수능)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

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 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

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⑦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⑥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5.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6.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7.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제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제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제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제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9.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 8%가 넘도록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학년도 9모)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홀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중 언니 이중 오빠. 한참 쟁쟁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리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걀귀신이 웅웅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찢찢거리며** 떡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엎드리게 했었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1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 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12.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 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쨍쨍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웅웅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5학년도 6모)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물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습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어써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

1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은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은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⑤ ㉠은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은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⑤	②	③	①
③	④	⑤	⑤	③
②	④	⑤	③	⑤
④	③	③		

[1~4]

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또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방을 점유하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하는데 소유권의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데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동산인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점유를 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지배 없이도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하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간접점유 역시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직접점유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점유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빌려준다면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면서 피아노의 소유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의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므로 ㉠과 달리 점유로 공시될 수는 없으나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과 같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단 5에서 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 경우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등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과 맺은 계약이 유효한 양도 계약이라면 계약 이후에도 갑이 금반지를 보관 하더라도 양수인인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점유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을은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반환청구권이 양도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은 계약에 의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갑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갑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하므로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권을 가진 을은 금반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에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고 하였으므로 갑이 금반지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⑤ 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을은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과 을의 계약에서 양수인인 병은 양도인인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원칙에 의해 갑과 상관없이 병의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된다.

[5~10]

5.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의 내용을 ‘바젤 I’ 협약, ‘바젤 II’ 협약, ‘바젤 III’ 협약의 순서로 제시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인 조약이나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국제 관습법과 대비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 기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이 2문단에서 설명되고 있긴 하지만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 역시 설명되고 있지 않다.

⑤ 글의 핵심 화제인 BIS 비율 규제의 주체는 바젤위원회뿐이므로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신뢰가 구속력을 형성하는 BIS 비율 규제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조약이나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인 국제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고, 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BIS 비율 규제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

범이라는 내용이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4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바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지 못해 재무 건전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5문단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이 국제기구의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위원회의 바젤 기준을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법제화하는 것은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시장에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바젤 I’ 협약에서는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바젤 II’ 협약에서도 유지된다. ‘바젤 II’ 협약에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으로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부 모형의 경우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모두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바젤 I’ 협약은 회사채에 위험 가중치 100%를 획일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에도 위험 가중치나 위험가중자산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BIS 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바젤 II’ 협약은 감독 기관이 필요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제적 위험 가중치는 0%에서 150%까지이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20%에서 150%까지이다. 만약 위험 가중치가 낮은 국제채를 매각하고, 이를 위험 가중치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위험가중자산이 더 커지므로 BIS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⑤ ‘바젤 III’ 협약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다.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2%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BIS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15%라고 할 때 기본자본의 비율이 6.5% 이상이면 BIS 비율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6%를 넘겨야 한다는 ‘바젤 III’ 협약도 충족시킨다. 따라서 ‘바젤 III’ 협약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

본이 최소 2%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바젤Ⅲ’ 협약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도록 하고 있다. 갑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변동 없이 1,000억 원이고, 기본자본은 50억 원이므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은 $(50/1,000) \times 100 = 5\%$ 가 된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완자본의 증액 여부는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 은행은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바젤Ⅱ’ 협약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110억(50억+20억+40억) 원이고, 위험가중자산은 1,000억(300억+300억+400억) 원이므로 BIS 비율은 $(110/1,000) \times 100 = 11\%$ 가 된다. 따라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한다.

② <보기>에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만약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줄어든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면 BIS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BIS 비율은 공식된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는 가정하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국채나 회사채 모두 동일하게 300억 원이 된 상황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 된다. 만약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큰 1,000억 원이라 가정할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300억 원이므로 국채의 위험가중치는 30%가 된다. 즉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보다 낮다.

④ <보기>는 ‘바젤Ⅱ’ 협약에 따라 발표한 표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에 위험 가중치 50%를 곱한 값이 300억 원이다. 따라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젤Ⅰ’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이므로 ‘바젤Ⅰ’ 협약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600억(600억×100%) 원임을 알 수 있다.

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본문의 밑줄 친 ㉠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이고,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준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 기준을 국제 금융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 받지 않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준의 준수 의무가 있는 회원의 국가가 바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준의 준수 의무가 없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바젤 기준을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과 반대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바젤위원회 현장은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회원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의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해설 : 국제 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으므로 ‘발을 들이지’를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계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영하여 산출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BIS 규제 비율은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은 ‘8%가 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말랑말랑한 법’이 ‘딱딱한 법’의 모습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말랑말랑한 법’에 대비되는 ‘딱딱한 법’에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해당하므로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로 바꿔 쓸 수 있다.

[11~14]

1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중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중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런데 중가에서 평소에는 신주를 ‘곰팡이가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삿날’이 되면 ‘갑자기’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도록 하여 귀하게 대접한다. 중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회화화함으로써 중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

간다는 것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자손들이 대립하여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것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종가의 행위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가의 부당한 위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통해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는 것이므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종가에 대한 선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1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2~3행에서 ‘노래’는 ‘귀신을 끌어 엮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은 마지막 행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형상화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A]는 ‘귀신을 끌어 엮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다. [B]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가 제시된 것이다.

1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용용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종가’ 뒤뜰에 ‘달걀귀신’이 있다는 마을의 풍설을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은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검은 기와집’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가 ‘상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끌어 엮드리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므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 시의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 나간다’라는 현재 시제형 표현을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한 행동과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보기>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횡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가 지닌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마지막 행에서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함으로써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기를 바라며, 상처를 덧나게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이야기와의 결합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종가’에 얽힌 화자의 경험과 종가와 연관된 ‘동네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12~15행에서 ‘이야기’를 통해 ‘노래’가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15~18]

1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함께 눕고 싶은 ‘돌들’은 청산에 동화되어 살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로 볼 수 있고, ‘돌들’과 함

게 놓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에 ‘물’이라는 자연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나’처럼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 중 하나일 뿐 화자가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는 ‘돌들’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으로, 자연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나)에 쓰인 부사 ‘다만’과 의존 명사 ‘뿐’은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로, 이를 통해 존재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산길’을 가면서 발견한 ‘인가’, ‘서쪽 마을’, ‘저녁 연기’를 보며 속세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돌들’을 보면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속세와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작품 표면에 화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16.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가)에서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에서 ‘서른 번 다져 두’었던 것은 속세를 떠나 청산에 살겠다는 생각을 의미하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은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 살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포기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산길을 걸으면서도 화자가 ④를 떠올린 것은 청산에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적 갈등하는 화자의 상태를 내포한다. (나)에서 화자가 말하는 ‘관습’은 즐겁게 차를 즐기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이 행위는 고요하고 아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객관적 실재로 여러 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⑥의 ‘관습’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행위로서 내면에 평정을 이루게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⑥는 길을 가다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습’ 자체를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며 그리워하는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② ⑥는 ‘호음로’ 하는 것으로 화자가 달가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이다. 화자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아와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깨닫는다. 따라서 ⑥를 화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④가 ‘서쪽 마을’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서쪽 마을’은 속세를 의미할 뿐 관념적으로 생각해 낸 현실 밖의 세계를 의미하는 ‘피안’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⑥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저녁에 차를 마시는 행위가 즐겁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안식에 대한 화자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④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 관련되므로, 자신을 불쌍하

게 여기는 감정인 자기 연민과는 관련이 없다. ⑥는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행위로, 화자는 이 행위를 ‘달갑고’ 즐거운 일로 여길 뿐, 이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다.

1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일 뿐 ‘돌들’이 거친 세상살이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은 청산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 지금과는 달리 청산에 들어온 직후에는 아직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㉔은 ‘한 가정’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누구’에 의해 행해진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나타낸 것이다.

⑤ ㉔은 화자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있다는 점과 화자가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발을 푸니’는 화자가 청산에 들어와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잘 보인다’라는 것은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서서히 자연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한편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화자가 이제부터는 현실을 인식할 때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에서 ‘편지 구절’과 ‘칫솔’은 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과 관습, 즉 경험적 사실을 통해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존재를 인식할 때 오로지 사실과 관습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존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가)의 ‘허우적거리는 여울물’과 ‘때까지들’에는 속세에 대해 미련을 지닌 채로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의 시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누구’를 절대자로 본다면 이는 세상의 존재를 인식할 때 절대자와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 경험 등에 의존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이 구절은 화자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은 속세와 단절된 순수한 자연물로, 이들과 잠들고 싶다는 것은 자연에 동화되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수능)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채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채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채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채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A]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

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채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3.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ㄱ	ㄴ	ㄷ
①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 지급
②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제공
③ 급식 계약 승낙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④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⑤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대금 지급

4.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수능)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

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 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는 정책을 수행한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6. ㉤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의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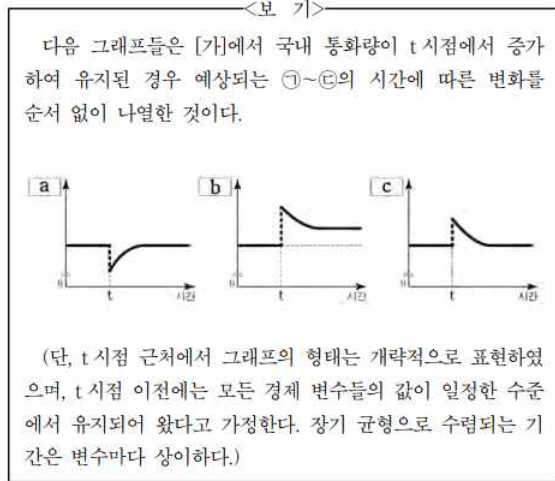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9.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증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피하는

-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9모)

(가)

유자냄에 유자가 열리고, 꺾나무에는 꺾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냄에 유자가 열리고, 꺾나무에는 꺾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너 헛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멎혀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도 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래서 소자(邵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흥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 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1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떨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들었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시아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1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③ ㉢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④ ㉣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⑤ ㉤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나)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나)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전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나)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나)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나)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은 놚이 은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샅 찢려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제4수>
- 조준성, 호아곡 -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1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17.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가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은 놚이 은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③	①	④	①
⑤	①	④	③	②
④	③	⑤	③	④
①	③	③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계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계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계약 모두 계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계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계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계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계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계약상 급부에 의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계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상의 급부는 없다(ㄴ)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4.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상 권리자에게 계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는 사라진다.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

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5~10]

5.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사국 물가가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을 통해 안율이거나 금리 증가 등의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서 세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 하는데, 이는 물가 경직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금리 하락의 폭이 작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환율은 단기에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한 반면 물가의 경우 단기에는 신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가의 조정 속도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을 통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가 경직성이 클 경우에는 물가의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므로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자동성은 정책 수행을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카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위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강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의 강화는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반면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므로 가시성이 높다.

③ 자연 보존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금지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

④ 정부 기관에서 특정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일수록 직접성이 높으므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으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정부 기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7.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에 해외 자금 유입이 증가 한다면 B국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B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B국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적어지는 반면 A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금융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므로 A국 환율의 오버슈팅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A국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A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A국에 외환의 유입이 증가하면 A국 환율은 다시 낮아져 균형 환율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A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A국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므로 정책 당국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A국의 내수는 위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물가

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에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실질 통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C이다. 한편 시장 금리의 경우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가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면 반등하게 되므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a이다. 환율의 경우 오버슈팅에 의해 크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로 수렴되는데, 이는 사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 다 그런데 자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균형 환율 역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b이다. 정답 ④

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단락에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설명되고 있다. 미세 조정 정책의 수단으로 정보 공개, 가격 규제 축소, 세금 조절, 환율 변동 보험 제공, 지급 보증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와 같은 강제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문단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 보험의 제공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② 5문단에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조절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④ 5문단에 '외화 사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급 보증 제도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⑤ 5문단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1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드러낼'은 '드러나다'의 사동사인 '드러내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말이므로 '노출될'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괴리되다 : 서로 어그러서 동떨어지다.

③ 초래하다 :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

⑥ 복귀하다 : 본래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

⑤ 도모하다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11~15]

1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에 ~가 열리고 ~에는 ~이 열리는 이 ~한 길은 ~로 기울~'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이 들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임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달'과 '달빛'의 시어를 반복하여 '달'과 '달빛'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는 '경사감', '거리감', '신발'처럼 일부 시형을 명사로 종결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나)는 '달'을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거나 '나를 끌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달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낼 뿐 달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용연사'의 규모가 작다고 여기는 사당과 달리 집의 규모가 작다고 여기면 작을 수 있지만 크다고 여기면 클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뿐,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⑤ (가)는 '오오 기우는 세계여', (나)는 '아, 그것은~'에서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서 촉발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낼 뿐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또 (다)는 감탄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1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6연에서 화자는 '그것' 곧 '달'이 멀리 있음에도 태어날 때 떨어져 나간 '모체의 태반'처럼 '나를 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에게 미치는 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6연에는 '그것'이 멀리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나 '모체의 태반'을 통해 아쉬움을 해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연에서는 '조상'인 '그'가 '달'과 함께 성장했고, '달'과 함께 생활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4연에서는 '조상'이 '일생'을 스스로 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는 1연에서 언급한 '달의 숭배자'로서의 '조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4연에서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는 것은 바로 '일생' 동안 '달의 자장 속에 갇혀 살기를 원했던' '내 조상'처럼 자신도 '달빛 체질'임을 나타낸 것이다. ④ 2연에서 '그' 곧 '조상'은 '달'과 함께하는 생활에 행복해하며, 3연에서는 '달'을 그리워하고 '달'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달'에 대한 인식이 '조상'의 인식과 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조상처럼 '달'에 끌리어 '달의 자장'에 속하려는 '달빛 체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6연에서는 이런 관계가 '바닷물'을 끄는 '인력'처럼 매우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2연과 5연에서는 ‘길’에 놓인 ‘자갈’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화자의 긍정적 심리를 ‘자갈이 빛났다’와 같은 밝음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2연에서도 ‘달빛’이 밝다고 했는데, 이는 달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달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각 시에서 ‘빛나고’ ‘밝은’ 속성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심리를 드러낸 것일 뿐,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연에서 화자는 황혼기의 자신이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가벼운 신발을 신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젊음’이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힘들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가)의 3연에서 화자는 경사길을 걸어 ‘시야가 열리는’ ‘바다’를 만난다고 했고, 그 바다를 ‘잔잔한’ 세계라고 했다. 이는 그가 늙어감에 따라 이르게 된 평온한 내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③ (나)에 1연에서 화자는 태양 체질을 ‘뜨겁고 부신’ 것으로, ‘달빛 체질’을 ‘아늑하고 ‘조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체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촉각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④ (가)의 5연에서는 ‘해가 저물’ 때에 ‘설레’고, (나)의 3연에서는 ‘낮’보다 어두운 밤에 ‘크나큰 기쁨’을 만난다고 하였다. 이는 어두운 속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은 글쓴이에게 자기 집이 작다고 말한 ‘사양’과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이는 자기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정도로 작다는 뜻의 ‘용연사’로 명명한 이후에도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이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은 “있겠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물의 외적 형태, 곧 크고 작음은 처음 생겨날 때 결정된 것이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㉔은 성인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㉔은 ‘굳은 ~ 생각해 보게.’라는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내면의 것으로 시험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권유하려 하고 있다.

⑤ ㉔은 ‘집과 몸’, ‘몸과 마음’, ‘마음과 천지’의 관계를 연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양’에게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은 ‘바다로 기울’고 있는 ‘길’로 황혼기를 맞이한 화자의 삶을 의미한다. 그 길을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난다고 묘사한 것은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사물의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치’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의 가치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것은 자연에 섭리를 따르는 일로, 화자는 자신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이 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고 한 것은 사양의 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집이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걷는 내리막 경사길을 ‘신비스’럽다고 했는데, 이는 황혼기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 ‘향기와 빛깔이한테 모이는’ ‘뜰’은 ‘용연사’의 뜰을 의미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양의 생각을 지적하려 했을 뿐,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은 ‘바다’를 이르는 것으로, 화자가 내리막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평온한 세계를 의미한다. (다)에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것은 ‘사양’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자연으로, ‘사양’의 집이 자연을 담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와 (다)에서 자연으로부터 위로 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기우는 세계’는 인생에서의 황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그러한 세계를 신비롭게 인식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가 황혼기를 불완전하게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다)에서 ‘편히 여기고 거처하는 집’은 작지만 자기 집에 만족하는 ‘사양’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16~18]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허술한 배 두신 분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험난한 정치 현실을 경계하라는 요구를, (나)는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참소를 분별하여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구나 자신이 바라는 행동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 <제2수>의 종장은 ‘고기’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대상의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다) 모두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의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의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다)의 ‘별써 아니 자랐으랴’, ‘누구와 마주 잡을꼬’ 등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표현은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들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가)~(다) 모두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7.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제1수>의 중장에서 밤새 자란 고사리를 캐어야 한다는 걱정이 나타나고, 종장의 고사리를 캐어 조석의 끼니를 이으려는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중장에서 걱정이 강화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제3수>의 중장에서도 농기구를 다루는 데 서툰 자신이 누구와 같이 농사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3수>의 종장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낸 내용이므로 화자의 걱정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아이야’라는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제1수>에서는 ‘구럭 망태’를, <제2수>에서는 ‘도롱이 샷갯’, ‘남짓대’ 등의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전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제1수>의 종장에서는 ‘나물’을, <제3수>의 초장에서는 ‘죽조반’을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4수>의 종장은 ‘어즈버’라는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심외산’이 화자의 심회를,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은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릴 정도로 고통받는 자신의 심리적 정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지켜 내려는 화자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풍파’가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 ‘어디로 갔단 말인가’는 당쟁에 휘말려 시련을 겪은 관료가 파직, 유배, 은거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험한 구름은 풍파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구름이 험’한 상태에서 ‘처음 나’온 신진 관료들에게 험난한 정계에서 처신에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온 뉘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화자가 임금이 온갖 참소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화자가 자연물인 ‘고기’를 의인화하여 자연과 더

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모)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⑦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⑮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

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2.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3. ⑦과 ⑮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⑮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⑮은 ⑦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⑮은 ⑦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⑦과 ⑮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⑦과 ⑮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학년도 9모)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 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6.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학년도 6모)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12. 밑줄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13.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가)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너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를쏘나
이 사람이 술 즐거움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와 진배없네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뵈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라
여러 날 칩멀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꽤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몸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 구강, 복새곡 -

* 봉고파출 : 어사가 고을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잠금.

(나)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이 불 제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제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전송하자 등게 등게
등등 떠서 높고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굽이같이 굽틀뼛 뒤
틀어져 구름 속에 들거고나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무에 걸렸다가

풍소소 우낙락할 제* 자연 소멸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풍소소(風蕭蕭) 우낙락(雨落落)할 제 : 바람 술술 불고 비가 후둑 후둑 내릴 때에.

(다)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대사(大絲) 황사(黃絲) 백사(白絲) 줄을 통 열레에 살이 없이
바람이 한창인 제 삼간 퇴김 사간 근두* 반공에 **솟아올라 구
름**에 걸렸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먼 데
임** 줄맥을 길게 대어 낚아 올까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삼간 퇴김 사간 근두 : 갓은 재주를 부려 연을 낚리는 것을 말함.

* 줄맥(脈) : 줄의 힘.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으로, 서성 뉘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술맛에 대한 평가로, 장사가 홀연히 등장했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③ ㉢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을지 추측한 진술로,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④ ㉣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좋은 술을 얻은 것은 그가 옛 인연이 있었던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⑤ ㉤은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다.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감긴 실을 끝까지 풀어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이다.
- ② ㉠은 비를 기원하여 바다 건너 자연물에 걸어 두려는 대상이다.
- ③ ㉡은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하늘에 유유히 띄워 두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입에게 보내려는 전언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집단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날리는 대상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가들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진' 다 적시는 대목은 경험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 ②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추며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군.
- ③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드러내고,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연이 '굽틀뉘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②	④	③	②
④	②	④	④	③
①	③	②	②	④
①	③			

[1~4]

1.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혈액의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한다. 혈액의 손실은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겼을 때에 발생하므로, 섬유소 그물이 혈액 내에서 뭉쳐 만들어진 혈전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만들어진 덩어리이다. 따라서 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④, ⑤ 1문단에 따르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혈관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칼슘의 역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혈액 중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고 비타민 K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칼슘염이 혈관에 침착될 수 있지만,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침착되는 것은 아니다.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칼슘이 혈액 내에 흡수되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3.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카르복실화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3문단에서 ㉠은 식물에서 합성되며, ㉡은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는 비타민 K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을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하는 카르복실화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과 ㉡ 모두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거나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4.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트롬빈은 비타민 K가 관여하여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됨으로써 전환된 것이다. (다)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를 투여한다고 해서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비타민 K는 혈전을 만드는 데에 관여하지만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가)를 투여하면 비타민 K의 작용이 방해받아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

② 혈전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친 것이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를 투여할 경우 뭉쳐 있는 혈전을 풀 수 있다.

④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트롬빈이 작용을 해야 하며,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타민K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 모두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⑤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는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도 피브리노겐의 피브린으로의 전환을 억제하므로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5~8]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문단에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지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나,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물건이 한 개일 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지분'은 하나의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 경우, 각자의 몫을 뜻한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물건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지분도 커지게 된다. 이때 무상 취득자는 유류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분이 작아진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때 유류분권자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권자가 무상 처분된 물건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는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유류분의 정의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상 처분된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한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③ 유류분의 취지는 피상속자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의 몫이 지분으로 반영되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동까지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A \text{ 물건의 가치} + B \text{ 물건의 가치}) \times 1/2$, 즉 $(300+100)/2=200$ 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된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A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100/700$ 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이 아니라 $1/7$ 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700+100)/2$ 가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

의 시가가 700이므로 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은 300/700, 즉 3/7이다.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300+100)/2$ 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 물건의 시가는 100이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은 200이고,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400이다. 갑의 재산 100은 두 경우 모두 병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9~13]

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이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인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4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안정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신용 공급의 팽창이나 신용 공급의 축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과 달리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으로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활용하며, 5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1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이용하는 데, 경기 과열기에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적립된 완충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 따르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경기가 과열되면, 즉 호황일 때에는 정책 당국은 금융 회사로 하여금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 따르면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즉 불황일 때에는 완충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⑤ 5문단에 따르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에는

효과가 미미한데, 이러한 현상을 ‘큰 밀어 올리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확대된 신용 공급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큰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신용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자산 시장의 버블이 발생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통화 정책으로 인해 확대된 신용 공급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큰 밀어올리기’를 통해 통화 정책이 신용 공급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 버블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려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기 주체의 반응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보기>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수단 외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에서 ‘들’은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에서의 ‘들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에서 ‘든다’의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이다.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에서 ‘든’의 의미는 ‘어떤 처지에 놓이다.’이다.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에서 ‘들자’의 의미는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이다.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에서 ‘들기로’의 의미는 ‘적금이나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이다.

[14~17]

1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등에서 대구와 대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 나’를 남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여정의 거리

를 제시한 것이지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방패연’이라는 구체적 소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려는 소망과 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소소 우낙락할 제’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서풍’과 ‘동해’를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어휘로 볼 수 있지만, ‘방패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하얀 실’, ‘백룡’ 등의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방패연을 띄우는 움직임과 연의 이동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는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1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어사인 화자가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먼 곳에서 오는 손님에게 좋은 술을 싸게 팔도록 한 이 부사의 간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나)에서 화자와 이 부사 사이에 옛 인연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탄 말이 지친 상황이고, ㉑ 다음으로 이어지는 ‘서성 밖에 잠깐 쉬어’에서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해 행로를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

② ㉒은 촌사람의 솜씨로 볼 수 없는 좋은 술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는 이 부사가 미리 준비한 술이라는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③ ㉓의 ‘수상히 오는’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을지를 진술한 것으로, 어사인 화자에게 술을 싸게 판 것임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⑤ ㉔은 얼음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화자가 남여 위에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워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어지는 ‘그 누가 저어하리’에서 그런 화자의 모습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위엄을 세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제’를 통해 ㉔는 감긴 실을 끝까지 풀어서 띄워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㉔가 동해 바다를 건너가서 외로이 서 있는 나무에 걸렸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지 비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③ (다)의 ‘바람이 한창인 제’를 통해 ㉒를 바람이 찾아들었을 때 하늘에 띄워 두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④ ㉔는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려는 소망과, ㉒는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임에게 보내려는 전언(전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㉔와 (다)의 ㉒에 집단의 행동이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연이 ‘숫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는 먼 곳에 있는 임을 ‘줄땀을 길게 대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뉘아 오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을 자기 곁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지 임에게 가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얼음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자조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정월 보름날 방패연에다가 여러 가지 근심 거리를 작은 글씨로 써서 멀리 띄워 보낼 때 ‘큰 잔에 술을’ 붓고 ‘마지막 전승’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러 가지 근심을 없애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화자가 어사로 임무 수행을 하며 느낀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화자가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여러 가지 근심)를 해소하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의 ‘굴뚝뒤편 뒤틀어져’는 방패연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방패연’이라는 대상을 부각한 것이고, (다)의 ‘강원도 설화지’는 연의 재료인 강원도 평강에서 나는 빛깔이 흰 종이를 강원도라는 지역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 크기로’ 라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연’이라는 대상을 부각한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